

download



Viacommerce®

poste italiane spa sped. a.p. 70% DCB bologna
n°40 2018 primo semestre
reg. trib. bologna n°7195
del 20 02 2002 per. semestrale
direttore resp. mario nanni
scienza grafica Viabizzuno
edizione Viabizzunoeditore
stampa, red. Viabizzuno srl
10 via romagnoli
40010 Bentivoglio Bologna Italia
+390518908011
www.Viabizzuno.com
p.iva 및 c.f : 01614551206
기업 등록 bologna, n. 351858
자본금 € 5,000,000.00 € i.v.
텍스트와 이미지의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표지:
Palazzo Mondadori, 'sospeso, leggero ma non troppo'(정지, 가벼움 그러나 지나치지 않은)'프로젝트
이탈리아어/영어 책임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삼림에서 나온
식물 섬유를 함유한 종이에 인쇄된
da foreste gestite in modo responsabile
책임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삼림에서 나온
식물 섬유를 함유한 종이에 인쇄된
합리적인 가격의 무료 샘플
€ 2의 합리적인 가격의 무료 샘플
cod. GR.002.40.IT



빛이 색을 만든다 light generates colour

곧 블랙이 화이트이다 black is to white

즉 as

컬러가 곧 빛이다 colour is to light

즉 as

삶이 곧 자연인 것처럼 life is to nature

즉 as

사랑이 곧 열정인 것처럼 love is to passion

즉 as

건축은 디자인이다 construction is to design

즉 as

빛이 곧 태양이다 my light is to sun

~~~~~

색과 빛의 연구는 각 문화의 장벽을 초월한다. 소리, 말, 이미지와 연결되어 과학에 존재하기도 하며, 문학 및 회화, 음악에서도 발견된다.

언제나 학자와 시인, 예술가 및 과학자들의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색.

1873년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는 모음(a,e,i,o,u)을 색으로 묘사했다: ‘검은 A, 흰 E, 붉은 I, 초록의 U, 청색의 O, 모음들이여!’

랭보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색과 음악의 관계에 주목했다: 1738년 볼테르는 뉴턴 이론에 관한 그의 대중적인 에세이인 ‘뉴턴 철학의 요소들’ 그리고 괴테가 그의 유명한 ‘색채론’에서 재작업한 1740년 프랑스 예수회 수학자 루이스 베르테랑 카스텔의 유지컬과 색채 톤 간의 유추에 대한 연구인 ‘색채의 광학 이론’이 그 예이다. 1857년 보들레르는 그의 시집 ‘악의 꽃’에 속한 시 ‘교감’에서, 소리와 향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표현했다. 중세 시대에는 색이 예술적 기법에 있어 논문의 주제로 주목받았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 장인들이 누앙스와 움직임 그리고 통로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비지오(bigio, 잿빛 회색).

색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에 있어 신성한 언어가 되었다. 그는 빛이 그의 그림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붓이 빛을 표현하기를 원했다. 194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저서 ‘회화론’에서, 레오나르도의 천재성은 그의 논문로 직접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하며 그만의 표현의 규칙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그는 색과 빛의 명백한 연결고리를 만들며 색과 빛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

‘불빛은 모든 것을 황색으로 물들인다. 그러나 따로 불빛이 없는 환경의 물체들의 색과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빛이 켜지면 푸른 빛이 켜지고 그리고는 파란 빛과 노란 빛이 혼합되어 아름다운 초록 빛을 만들어낸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자 기쁨인 색은, 이해하고 평가하기 가장 어려운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뇌가 시각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투크레티우스의 시 ‘만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보면, 기원전 1세기에 사람들은 이미 색은 하나의 감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그 이상이었다. 색은 빛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기본 입자들이 결코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것을 통해 사물들이 어떤 색깔로도 덮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색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빛의 자극과 색의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공식 발표는 1666년에 나왔다. 뉴턴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백색광, 즉 색이 없는 빛이 스펙트럼에 의해 분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7가지 색을 정의했고, 그 7 가지 색 중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에 남색이 더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시각적 인식은 총채의 6가지 색채 계열에 기인하여 수 백만 가지의 색을 인식할 수 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그리고 보라. 어떤 물체도 하루 종일 계속해서 같은 색을 반사하지 않는다: 태양과 구름, 겨울과 여름, 거리와 상점들은 각각의 순간마다 우리의 눈에 다른 색을 반사한다. 이 변동성은 하나의 디자인 도구가 되고, 빛의 마법을 이해하고 알리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비록 그 빛이 인공적이라도, 결코 감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매주 밤마다 몬다리니 궁전에는 오스카 니메이어가 디자인한 매순간 다른 빛이 비춘다. 따뜻한 색부터 차가운 색까지, 한낮의 순수한 백색은 시멘트 표면의 색조의 진정한 색을 찾아준다. 무지개 빛의 이 프로젝트는 사진, 음악, 영화 및 문학을 포함한다. 빛과 색이 그러한 것처럼 예술과 지식은 결합하며, 색은 그것을 비추는 광원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빛이 없는 모든 것들은 검은색이 된다. 어둠은 색을 지워버린다. 이것이 바로 비아비주노(Viabizzuno)가 항상 98 근처의 연색 지수 Ra 또는 CRI와 2015년에 조명 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단체인 조명 공학 협회(IES)에 의해 소개된 새로운 방법 tm-30-15를 사용하여 빛을 받은 물체의 자연색에서부터 빛의 질을 연구하는 이유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의 다른 지수를 계산하여 99가지의 색상 샘플을 과학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Rf와 색상 충실 지수(colour fidelity index) 그리고 Rg와 색상 재현 지수(color gamut index) 좋은 디자인서는 최고의 램프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하며, 비아비주노(Viabizzuno)는 각각의 요구에 적합한 전원을 제공한다:2700K, 3000K와 오토 쿼튀르 분야를 위한 Vb K,Vb K에서 빛은 모든 색채 스펙트럼의 모든 색상을 가져온다. 3000Vb K의 색온도와 98과 같은 아주 높은 CRI의 빛이 있는 도크에 위치한 아담(Adeam) 샵에서처럼, 이 조명 시스템은 옷의 풍부한 색감과 중요한 디테일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색을 말할 때 우리는 색깔이 있는 빛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을 둘러싼 자연색을 강화시키는 빛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색을 활용하는 것은 색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색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바드라트(Kvadrat)의 쇼룸에서처럼 빛은 직물 전체의 색채의 풍부함을 강화하고, 개러지 이탈리아(Garage ITALIA)의 아이디어룸처럼, 가능한 자동차 차체의 맞춤 설정 옵션들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한 페인트, 직물 및 가죽 샘플들의 실제 색상을 되살려준다. 하루 동안 빛의 변화에 따라 같은 사물도 어떻게 각각 다른 색조를 얻게되는지 관찰하는 것, 그것은 디자인에 있어 근본이다: 색상, 강도와 본질의 변화. 이 페이지는 하얀 빛을 받을 때만 하얀색이다. 파란 빛을 받으면 파란색이되고, 받는 빛에따라 색은 매번 변한다. 빛은 그 장편과 그 힘으로 빛을 발산하는 생명이 없는 물체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비지오(회색, 이탈리아어:bigio): 불명확한 어원의 남성 명사, 잿빛 회색을 나타낸다. 형용사로 비유적인 의미로 애매하거나 미정을 의미한다: 피렌체에서는 메디치가의 당파를 비지오라고 불렀다. 사보나클라에 의해 세워진 정권과 싸웠으면서도 적들과의 임시 동맹에게 열린 역할을 유지하기도 했다. 1435년의 ‘회화론(De pictura)’이라는 책에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빛과 색 사이의 연결 고리를 강조하고, 기본색을 빨강색, 밝은 파랑색, 초록색, 회색으로 정의했다. 이 네 가지 색으로부터 다른 모든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르네상스 화가 거장들이 어떤 색과 다른 색상 사이의 통로의 색상으로 사용한 오늘날의 회색은 rgb led 광원의 ‘실종된 백색’이다. 정말로, 이 유형의 기술은 순수한 백색의 생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이 훨씬 어둡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스름한(bigio) 파도와 함께 내려가 투박한 길로 들어섰다. 삼도천(그리스 신화의 저승에 있는 강:styx)의 이름을 가진 늑’. (단테 알리기에리, 지옥편, 칸토 VII) ‘나는 나에게 기억을 남긴다, 내가 듣는 것에 의해, 레테(망각의 강)는 드넓은 개미 평원을 그것을 닦아낼 수도 어둡하게(bigio) 만들 수도 없다’(단테 알리기에, 연옥, 칸토 XXVI)

~~~~~
the study of colour and light transcends the barriers of a specialist culture. it lives in science, in literature, in painting and music, it is connected to sounds, to words and images. colour has always been at the centre of the reflections of scholars, poets, artists and scientists.

~~~~~
in 1873 the french poet arthur rimbaud came to paint the vowels: ‘a black, e white, i red, u green, o blue’. before him, others had pointe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ur and music: voltaire in 1738, in his popular essay on newton’s theories ‘éléments de la philosophie de newton’ and the french jesuit mathematician louis berstrand castel in 1740 in ‘optique des couleurs’, a study on the analogy between musical and chromatic tones, later reworked by goethe in his famous ‘theory of colour’.

~~~~~
in 1857 baudelaire in ‘correspondances’, a poem belonging to the lyric collection ‘les fleurs du mal’, had found a link between sounds and fragrances. in the middle ages colour was the focus of attention of the treatises on artistic techniques, in the renaissance the master painters were looking for a new path to capture passages, movements and nuances: the red, the blue, the green and the bigio. colour becomes a sacred language also for piero della francesca, who would have wanted the light to penetrate the forms in his paintings and enter the brush to guide it. in the famous ‘treatise on painting’ of 1498, the genius of leonardo observes and measures the world with his own eyes and establishes the rules of his representation. in this work, he dedicates many reflections to colour and light, making clear their link. ‘the light of fire tints everything in yellow, but this will not appear to be true, if not to the comparison of things illuminated by air. floating the light illuminates the blue and it is like mixing together blue and yellow, which make up a beautiful green’. a torment and a delight for anyone designing using images, colour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components to understand and assess. it is a visual perception that our brain encodes when light hits our eyes.

~~~~~
lucretius, in his ‘de rerum natura’, in the 1st century bc had already understood clearly that colour was a sensation: ‘beyond that, since colours cannot without light exist and the elementary particles are never illuminated, from here you can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covered with any colour. how could, in fact, a colour be through darkness without light?’ a scientific formu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imulus of light and the perception of colour came in 1666, when newton discovered that a beam of white light, thus devoid of colour, when passed through a glass prism is decomposed into a spectrum of lights. the scientist identified seven colours, among them indigo, a colour between blue and violet, even if in reality, the visual perception of the human eye can recognise millions of colours, attributable to six chromatic families of the iri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violet. no one object ever reflects a colour that is constantly the same throughout the day: the clouds and sun, winter and summer, the shop and street reflect colours to our eyes that differ each time. this volatility becomes a design tool, an incentive for getting to know and for making known the magic of light: even if it is artificial, it is never the same. so every night of the week a different light illuminates the palazzo mondadori, designed by oscar niemeyer, from the warm colour of the dawn to the cold, pure white colour of midday that gives back the true colour of the tones of the cement. this project of iridescent light involves photography, music, cinema and literature. as light and colour do, it combines arts and knowledge, colours change along with the light source that illuminates them, hence all things become black in the absence of light. darkness obliterates colour. this is why Viabizzuno studies the quality of light starting from the naturalness of the colours of illuminated objects, using the colour rendering index Ra or CRI always near 98 and the new method tm-30-15, introduced in 2015 from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ies), a leading association in the field of lighting research. this method evaluates the quality of light on 99 sample colours in a scientific and rigorous manner by calculating two different indices: Rf, colour fidelity index, and Rg, colour saturation index (color gamut index). the good designer identifies the best lamp and Viabizzuno offers electronic sources suitable for different needs: 2700K, 3000K and Vb K for the haute couture sector, where light must bring out all the colours of the chromatic spectrum. as in adeam shop in tokyo, where light with a colour temperature of 3000Vb K and very high CRI, equal to 98, enhances the chromatic richness of the clothes and the precious details. when we speak of colour we do not mean a coloured light, but a light capable of enhancing the natural colours that surround it. playing with colour does not mean using it, but emphasising it, as in kvadrat’s showroom, where light enhances the chromatic richness of the entire range of fabrics, or in the materioteca of garage italia, where lighting returns the true colour of the paint, fabric and leather samples displayed to illustrate the possibilities for car bodywork personalisation. observing how the same object acquires different shades following the changes of light during the day it’s fundamental to design: the colour, the intensity and the essence change. our page is white only when it is struck by white light, it is blue if the light is blue, each time it is the colour that illuminates it. light is able to give life to an inanimate body radiating it with its virtue, and its power.

~~~~~
bigio: masculine noun with an uncertain etymology, it indicates the ash gray colour. the adjective, in a figurative sense, means ambiguous, undecided: in florence were called bigi the medici partisans who fought the regime established by savonarola and maintained however an open role to temporary alliances with the adversaries. in the paper ‘de pictura’ of 1435, leon batista alberti highlights the link between light and colour and identifies the four main colours in red, light blue, green and gray, from which it is possible to obtain all the others. used by renaissance master painters as a tone of passage between one colour and another, today the gray is the ‘missing white’ of the rgb led sources. ideed, this type of technology does not allow the generation of pure white.

~~~~~
‘than much darker was the water; and we, accompanying its dusky (bigie) waves, went down and entered on an uncouth path. a swamp it forms which hath the name of styx’. (dante alighieri, inferno, canto VII) ‘thou leave’st in me a memory, from what i hear, so great ant plain that lethe can neither wipe it out nor make it dim (bigio)’. (dante alighieri, purgatory, canto XXVI)







accent lighting illuminate the titles in the bookcases along the wall elegantly clad in pied-de-poule fabric. the fiore floor-standing lamps designed by peter zumthor stand alongside the comfortable sofa for reading and the table, the work of antonio citterio, while in the background the graphic presentation printed on tulle replicates the architecture of the palazzo morando. in the ‘the chef’s table’ restaurant, the n55 suspended light fittings cabled with a 65 750 mA propulsore dinamico and a lensoptica lens guarantee an ideal level of illumination and high visual comfort, revealing the chef’s activities in the kitchen and the secrets of his preparations. sul sole va lamps, designed by the architects neri&hu and crafted by Viabizzuno in brass and leather, illuminate the fragrant flower market. while a skilled florist creates his compositions, the micromen on mensolona, like precious jewels, discreetly and elegantly illuminate a series of glass vases and splendid plants. in the spa, the n55 luminaires, thanks to the high quality of their light and their high colour rendering index, CRI 98, enhance the colour and the texture of the natural wood and liquid marble, a work in black marble by mathieu lehanneur, visible from the large window overlooking via sant’andrea. in the final area of the itinerary, the concept store, the men sole furniture system enhances the precious objects on display with frontal lighting and adds depth and three-dimensionality with the illumination of the backdrop.



## grand hotel elle decor

**progetto project:** studio citterio viel  
**committente client:** hearst magazine  
**luogo venue:** palazzo morando, milano  
**superficie area:** 850mq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matteo vivian  
**fotografia photography:** pietro savorelli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n55 binario** men sole  
**mensolona** n55 sospensione  
**sul sole va** lanterna  
**fiore** micromen

밀라노의 패션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모란도 궁전은 ‘엘르 데코 그랜드 호텔’의 두 번째 에디션과 그 설치물인 ‘오픈 하우스’을 함께 주최했다. 스튜디오 안토니오 치테리오 파트리치아 비엘은 호텔 사업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했다. 호텔 객실이 유서 깊은 건물의 상층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디자인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공장소에 집중된다. 예술 작품을 즐기는 것에서부터, 주요 영화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영화를 상영하고, 쇼핑 기회 및 미식가들을 선정하는 이벤트가 있다. 객실의 고전적인 순서를 재발명하고 전통적인 리셉션 데스크를 없애고, 각 공간들은 주문 제작 가구와 바닥, 벽지를 포함한 인터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로 설계되었다. 신중하게 선택된 색상 조합들과 조명 디자인은 비아비주노 (Viabizzuno)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18세기 건물의 안뜰 입구, 랜턴 램프의 부드러운 불빛과 바 카운터에 반사되는 은빛은, 도시의 소음과는 멀리떨어져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분위기로 손님을 맞이한다. 이 여정은 도서관에서 시작한다. 쾌적한 일반 조명으로 빛이 비춰지고 벽난로의 불꽃을 재현하는 비디오 설치의 가상의 따뜻한 친밀한 환경을 만든다.

the palazzo morando located in the heart of milan’s fashion district hosted the second edition of ‘elle décor grand hotel’ and with its installation ‘the open house’, the studio antonio citterio patricia viel, with its extensive experience in the hotel trade, was aiming to investigate new possibilities for hotels. envisaging that the hotel rooms could occupy the upper floors of the historic building, the design concentrates on public areas accommodating a variety of different functions: from enjoying works of art, to the screening of films not normally seen in the major cinema chains, select shopping opportunities and gourmet culinary events. reinventing the classic sequence of rooms and abolishing the traditional reception desk, each area has been designed as an interior design project that includes custom-made furniture, floor and wall coverings, a carefully selected colour palette and a lighting design using Viabizzuno light fittings. the entrance from the eighteenth-century building’s courtyard, the soft lights of the lanterna lamps and the silver reflection of the bar counter welcome guests in an atmosphere that seems almost suspended in time, far from the noise of the city. the itinerary starts from the library, an intimate environment illuminated by a comfortable general lighting and heated virtually by the video installation that reproduces the flames of a fireplace.





## kvadrat

**progetto project:** sevilpeach  
**luogo venue:** ebeltoft denmark  
**superficie area:** 320mq  
**committente client:** kvadrat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Viabizzuno/sevilpeach  
**rivenditore Viabizzuno dealer:** cirrus lighting, london, uk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jonathan morrish  
**fotografia photography:** ed reeves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n55 sospensione**  
**n55 soffitto**  
**n55 parete soffitto orientabile**  
**n55 terra**  
**n55 binario**  
**c2**  
 **trasparenze**

크바드라트(Kvadrat)는 고품질의 섬유 국제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회사로 전 세계의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고품질의 원단을 제공한다.

크라드라트(Kvadrat)의 상품은 색상, 품질, 단순함 및 혁신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반영한다.

크라드라트는 일관되게 작품의 미적, 기술적, 기능적 속성을 강조하며 주요 디자이너, 건축가 및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하고, 도시 레빈과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를 포함한 미리암 벡스트럼, 라프 시몬스, 로날 부홀렉과 에르완 부홀렉, 토마스 데만든, 올라퍼 엘리아슨, 알프레도 아에베를리, 아키라 미나가와, 피터 사빌, 로만 시그너와 런던 기반의 건축가 세빌 피치는 1980년 덴마크의 오르후스의 건축가 폴센 & 테르킬드슨 (Polсен & Terkildsen)에게서 의뢰받아 에벨토프트에 위치한 크바드라트의 본사를 변화시켰다.

건물의 붉은 벽돌은 그 지역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특성과 하나가 된 디자인으로, 크바드라트의 색상 사용에 필수적인 주변의 해안 풍경을 배경으로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배경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온다. 세빌피치의 리모델링한 디자인을 통해,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효율을 높여주며 회사의 이미지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위치의 잠재력을 열었다: 직면 식당, 친환경적인 홈 쿠킹 식사를 위해 직원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은 회사의 심장이다.

공동 식사 공간인 회사 식당은 식사와 미팅을 위한 긴 테이블이 위치한 새로운 도서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부드러운 좌석이 있고 조용한 작업 공간에서 실외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열린 사무실 공간과 스튜디오는 공동 작업을 권장한다;

새로운 환영 공간, 사회적 공간, 도서관은 크바드라트의 가족 정신을 넓혀준다.

사용된 직물 및 색상은 이 장소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높은 커튼은 일시적인 분리된 공간을 위한 회의실의 유연한 경계, 또는 넓은 열린 공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편안한 직물과 색상

계열은 회사의 5개의 영역을 묘사한다 - 환영 공간, 경영 공간, 생산 공간, 사회적 공간 그리고 스튜디오 - 이 공간들은 건물을 가로지르는 복도에 의해 연결되었다.

본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화려한 320평방미터의 쇼룸으로, 이 곳은 이전에 창고로 사용된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서 고객들은 크바드라트의 고품질 직물과 제품의 톤과 색조를 탐색할 수 있는 있다. 입구는 가장 높은 부분의 경우 7미터에 달하고 출입구는 노란색 트림으로 디자인 된 각진 커튼 벽을 통과한다. 디스플레이 벽은 60 선형 미터의 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 3미터의 개폐식 벽면 커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전시할 직물을 사용할 수 있다.

kvadrat, danish company that holds the leading position in high-quality textiles international market supplying architects and designers all over the world.

kvadrat's products reflect the firm's commitment to colour, quality, simplicity and innovation.

the firm consistently push the aesthetic, technolog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textiles,

collaborating with leading designers, architects and artists including miriam bäckström,

raf simons, ronan and erwan bouroullec,

thomas demand, olafur eliasson,

alfredo häberli, akira minagawa,

peter saville, roman signer,

as well as doshi levien and patricia urquiola.

london-based architects sevilpeach has transformed kvadrat's head office in ebeltoft

which was commissioned from architects poulsen & therkildsen of aarhus in 1980.

the red brick of the building echoes the local architectural vernacular,

while the low profile of the structure sites it comfortably in the surrounding coastal landscape,

essential in kvadrat's use of colour, brought into the building through

new floor-to-ceiling windows. in their redesign, sevilpeach unlocked

the location's potential to better reflect the company's image,

while enhancing the working experience on site: the canteen, where employees gather

for ecologically home cooked meals, is the heart of the site;

the communal space of the canteen has been extended into a new library area

with a long table for dining and meeting, where soft seating areas

and quiet workspaces look out onto the landscape.

opened-up office spaces and studios encourage collaborative working;

a new welcome area, social spaces and a library extend kvadrat's family ethos.

fabric and colour are the heroes of the site: high curtains are used

as flexible boundaries for meeting rooms, as temporary

dividers or to soften large open spaces, while loose families of colours

and textures delineate five zones within the site – welcome, management, product,

social space and studio – linked by a corridor running through the building.

focal point of the headquarters is the spectacular 320sqm showroom,

occupying a space formerly used for warehousing, allowing clients

to explore kvadrat's range of high-quality textiles and products,

with tones and shades: entry is through an angled curtain wall,

seven metres at its highest point, with doorways picked out in yellow trim.

the display wall accommodates sixty linear meters of product,

while a bespoke wall of retractable three metres curtains allows textiles to be shown as intended for use.





이 쇼룸에 비아비주노(Viabizzuno)는 센서가 있는 주문형 선형 c2를 갖춘 지능형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센서는 어떤 커튼 레일이 사용 중인지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빛을 관리하여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직물을 보여준다.

세빌피치는 공간 전체에 빛을 비춰주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여 통합 조명 기구 제품군인 비아비주노(Viabizzuno)의 n55를 선택했다.

다양한 장착 위치에서 동일한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n55의 유연성과 범위는 이상적이었다: 서스펜션, 벽, 폴로어 스탠딩, 천장 및 트랙에 설치 가능한 특정 n55 램프 홀더는 세 가지 유형의 전구로 변경 가능하다: 클래식 전구, 장식 전구 및 기술적 전구.

광범위한 장식용 유리는 세빌피치와 크바드라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는 각 개별 공간의 기능과 일치하는 다양한 색채 디자인으로 건물 of the 특정 공간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색은 디자인의 중심이고, 빛은 최고의 컬러 렌더링 분류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n55 광원은 완벽한 선택이었고 n55는 직물을 표현하고 인테리어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물 전체에 사용되었다.

CRI(컬러 렌더링 인덱스)가 98이고, R9 값이 98, ies tm-30에 색상 충실도 지수 (colour fidelity index) Rf96그리고 색상 영역 인덱스(colour gamut index) Rg103으로 빛의 품질을 보장한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 그 제품의 실제 색을 나타내야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와 쇼룸에서텍스타일 디자이너가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

within the showroom, Viabizzuno installed an intelligent system with a bespoke linear c2 with sensors that recognize which rail is in use and manage the light accordingly, ensuring fabric is displayed in the best way possible.

sevilpeach wanted to use a common language of light fitting throughout the space, and chose Viabizzuno's n55 as a unifying family of luminaires.

the flexibility and range of the n55 were ideal as the same elements can be used in various mounting positions: either suspension, wall, floor-standing, ceiling and track. the specific n55 lamp-holder allows to change three types of light bulbs: classic, decorative and technical.

the extensive range of decorative glasses appealed to sevil peach and kvadrat, as these assist in defining particular areas of the building, with various designs of shade matching the functions of the individual spaces.

colour is central to the design, a light with the best in class colour rendering was therefore essential.

n55 light source was the perfect choice and was used throughout the building to render the textiles and enhance the clarity of the interior.

CRI (colour rendering index) of 98, an R9 value of 98, ies tm-30 with a colour fidelity index Rf 96 and a colour gamut index Rg 103 guarantee the quality of light.

indeed it was crucial, particularly in the design studios and the showroom, where extensive tests were undertaken to ensure that the light rendered the real colour of the products, enabling the textile designers to work successfully.





## garage italia

**restauro architettonico** architectural restoration:  
**studio amd** michele de lucchi  
**luogo venue:** milano  
**committente client:** garage italia immobiliare  
**superficie area:** 1.700 mq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centropolis design  
**referente del progetto** project manager:  
andrea castejon—centropolis design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matteo vivian, sabrina de franceschi, massimiliano morace  
**fotografia** photography: studio pietro savorelli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dca incasso a1 system  
cubo medium mt miami  
mt minispot con micromen 16.64  
battiscopa luminoso mt fanale con n55  
n55 parete soffitto orientabile c2  
n55 soffitto luce dell'aria  
mt marmitta con n55 soleluna  
m1 micro scomparsa totale m4  
bacchetta magica led bacchetta magica fluo  
mm parete soffitto p1  
n55 con lensoptica amP180 trasparenze  
**lampade customs** disegnate da andrea castejon  
con centropolis design

개러지 이탈리아(Garage Italia)는 밀라노의 아쿠르시오 광장에이전의 아집(agip)의 50년대 클래식 주유소 건축물의 기억을 떠올리는 컨셉으로 본사를 오픈한다. 이 작업은 미켈레 데 루키의 스튜디오 Amdl에 의해 복원되었다.방문자는 1층에서 '창조적인 구름'으로 환영받는다.이것은 라포 엘칸과 미켈레 데 루키가 고안한 장난기 있는 세계의 표현이다. 천 가지가 넘는 1:18 크기의 모델들이 디스플레이된 구조로색상과 그 디테일을 높이는 매달려 있는 얇은 전구들(마이크로맨:micromen)이 비춰주고 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마법의 물체를 창조해낼 뿐 만 아니라 자동차 경주의 세계도 상상할 수 있다. 구름 아래, 개러지 이탈리아만을 위해 창조된 mt miami의 빛으로 인해 따뜻한 분위기가 바 공간을 감싼다.이 조명은 '...남쪽 해변에서의 일몰'을 회상한다. 오전에는 색온도 2700K부터 정오에는 4000K까지 올랐다가 황혼에는 다시 2700k 되는 역동적인 빛으로 둘러싸인부드러운 플라밍고 핑크색의 조개 껍질. 새벽부터 해질녘까지의 자연광의 순환처럼.

in piazzale accursio in milan the headquarters of garage italia opens in the evocative fifties architecture of the former agip supercortemaggiore service station, restored by michele de lucchi's studio amd. the visitor is welcomed on the ground floor by the 'creative cloud', devised by lapo elkann and michele de lucchi as expression of a playful world. a suspended structure of more than a thousand models of cars in 1:18 scale, illuminated by thin suspension bulbs (micromen) which exalt their details and colors, creating a magical object that evokes childhood memories, but also the world of car racing. beneath the cloud, a warm atmosphere envelops the bar area, thanks to the light of mt miami, created exclusively for garage italia, which recalls '...a sunset at south beach'. a soft pink flamingo-colored shell that encloses a dynamic light which passes from the color temperature of 2700K in the morning to a light of 4000K at midday, returning to 2700K at dusk. like the cycle of natural light from dawn to sundown.





우리는 우아한 리프트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다. 그곳엔 클래식한 느낌의 벨벳 벽과 폴리조 1921(Foglizzo 1921)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좌석이 lensoptica amp 렌즈가 장착된 n55의 혁신적인 조명과 어울린다. 이 층만의 독점적인 욕실 공간은 리바(Riva) 모터보트의 탐생용 조명이 떠오르는유리가 포개진 형태가 적용된 n55의 시스템에 의해 빛을 받는다. 이탈리아 창의력, 혁신, 장인정신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식 조명이다.

위층으로 올라가면,마술봉 Fluo 조명이 계단을 비춘다.우리는 카를로 크라코가 셰프로 있는 밀라노 개러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왔다.n55 시스템 주변에 투사되는 mt marmitta 조명 피팅은 자동차 머물러 모양을 생각나게 한다.이 조명은 카테일 바로 바뀐 페라리 250 gto가 주인공인 이 공간을 비춘다.n55 시스템은 작업 공간을 비추고 자동차 차체 맞춤화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고품질의 빛과 아주 높은 컬러 렌더링 인덱스(98과 같은)는쇼에서 페인트, 직물, 가죽 샘플에 모든 색채의 풍부함을 표현하게 해준다.빛은 라포 엘칸과 그의 팀이 자동차와 항공기 및 선박을 창조하고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하면서 뽑어내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마테리오테카(materioteca, 작업 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여성 명사. 기술 및 미적 차원에서 물질을 연구하는 데에 전념하는 공간인아카이브, 자료 도서관, 전시 공간. 개러지 이탈리아의 창의적인 허브로이곳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생기있는 영감의 장소이다. '맞춤형 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다양한 재료를 탐색할 수 있다.

we are taken to the basement in an elegant lift where the classic taste of the walls in velvet and the seating in foglizzo 1921 leather meets the innovative light of the n55 with the lens lensoptica amp. the exclusive bathroom spaces on this floor are lit by the n55 system to which a glass of enwrapping forms is applied, recalling the navigation light of the riva motorboat. bespoke light for a customer who bears with him italian creativity, innovation and craftsmanship. going to the upper floor, by way of stairs lit by the light of the bacchetta magica fluo, we come to the restaurant garage italia milano by carlo cracco. the mt marmitta light fittings, projected around the n55 system, are reminiscent of the shape of a car silencer, illuminating the space where the star is a ferrari 250 gto transformed into a cocktail station. the n55 system was selected for lighting the materioteca, forge of car bodywork personalization projects. the quality of light and the very high color rendering index (equal to 98) allow the expression of all the chromatic richness of the samples of paint, fabrics and leathers on show. light becomes a means of communication to narrate the passion that lapo elkann and his team transmit during the creation and personalization of cars, aircraft and vessels.

materioteca: feminine noun. archive, library of materials, exhibition space dedicated to the study of matter in its technological and aesthetic dimension. creative hub of garage italia, it is a place of inspiration where ideas come to life. it allows you to explore a vast collection of materials used to make 'customized dreams'.







## dear to me

**progetto project: peter zumthor**  
**luogo venue: bregenz, austria**  
**committente client: kunsthauus bregenz**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fiore**

1997년, 장인 피터 줌서에 의해 디자인된 쿤스하우스 아트 갤러리는 보덴호의 호숫가를 따라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 오픈되었다. 이 건축 디자인의 주인공은 자연광이다. 정교한 유리를 외장재로 사용한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이 자연광은 내부의 공간으로 들어와 연속적인 변형과 다양한 강도로 공간에 모양과 깊이를 부여한다. 창립 20 주년을 맞아 수위스 건축가가 '나에게 소중한'이라는 전시회를 디자인하고 설치했다. 사람들이 작가에게 소중한 예술적 이니셔티브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추상적인 그림처럼 벽에 배열된 기하학적 패널은 장인에 의해 디자인된 의자와 스톨이 갖추어진 1층의 공간을 프레임에 담는다. 이 공간은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고 공유했던 음악가, 작가, 철학자, 과학자 및 장인들을 초대한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율가 노이비르트, 사진 작가 헬렌 비넷 또는 예술가 게다 스테이너와 요르그 뢰슬링거 또한 그들의 작품 전시를 위해 초대되었다. 전시회 내에서, 2 층은 어떤 재디자인도 피한다: 장인이 만든 건축물의 즉각적인 증거인 자연 채광의 천장과 반짝이는 테라초 바닥은 돌 벽을 드러내어 있다. 3 층에는 열린 중심 공간 주변으로 깊은 책장은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곳은 갤러리 도서관이다. 대중 독서 및 개인적인 연구를 위한 공간이다. 비아비주노는 피터 줌서와 함께 디자인한 비아비주노의 새로운 피오레 램프를 선보인 곳이다. 원통형 주각부가 있는 바닥 조명 피팅 시스템, 골이 유연한 고정된 가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손수 만든 검은 가죽으로 마감한 디퓨저. 수동 전위차계를 사용하여 온-오프 및 디밍 시스템이 장착된 이 램프는 마치 콘크리트에서 온 것 같다: 전원 케이블 없는, 12시간 동안의 충분한 용량의 내장 리튬 리온 배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된다. 국제적인 건축 거장에 대한 기억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장소에 최신 기술을 결합하면서도 간단하고 섬세한 존재감을 나타낸다.

in 1997, the kunsthauus art gallery designed by the master peter zumthor was inaugurated in bregenz, along the shores of lake constance. the star of the architectural design is the natural light that enters the interior rooms through a sophisticated system of glass cladding, giving shape and depth to the spaces with its continuous variations and different intensities. on the occasion of its twentieth anniversary, the swiss architect designed and set up the exhibition 'dear to me', a place where people can see and hear about the artistic initiatives that are dear to him. geometric panels, arranged on the walls like abstract paintings, frame the space on the ground floor, furnished with seats and stools designed by the master. this room plays host to musicians, writers, philosophers, scientists and artisans who have inspired and shared his works. people such as the austrian composer olga neuwirth, the photographer hélène binet or the artists gerda steiner and jörg lenzlinger who were also invited to exhibit their works within the exhibition. the first floor eschews any redesign: the ceiling of natural light and the polished terrazzo floor, enveloped by stone walls, are immediate evidence of the master's architecture. on the second floor, deep bookcases create a helical maze around an open central space. this is the gallery's library, a space for public readings and private research, where Viabizzuno presented its new fiore lamp, designed in conjunction with peter zumthor. a floor light fitting with a cylindrical steel base, a fixed stem that is flexible at its end, and a diffuser finished in black leather handmade in Italy. the lamp, fitted with an on-off and dimming system using a manual potentiometer, seems to come from the concrete: devoid of a power cable, it is powered by an internal li-ion battery with a capacity sufficient for 12h. a simple and delicate presence, but with a high technological content, in a space that draws together the inspirations and memories of a grand master of international architecture.

쿤스트하우스: '예술가의 집'이라는 독일어로 중성 명사로컨벤션, 전시회 및 예술 전시회가 열리는 건물을 뜻한다.비록 여러 예술가가 공동작업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는 공간이라는 더 넓은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지만,'아트 갤러리'로 번역될 수 있다.

피오레(꽃, fiore): 남성 명사,식물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부분인 라틴어 flos floris가 어원인 말로생식 기관을 포함한다: 이것은 변형된 것이다. 생식 기능에 사용되는 특별한 잎을 가지고 있는 싹,일반적인 잎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흔히 몇몇 꽃들은 그 식물과 동일한 이름인 예를 들면 '장미'로 표시된다. '그녀의 아름다운 가지에서 그녀의 무릎까지지역 속의 달콤함이 꽃 비가 되어 내린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칸초니에레) 비유적인 의미로,가장 최고의 부분, 선택된 부분,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젊음: 사람의 젊음이라는 식물은 미래가 언제나 장미와 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당신은 나만의 흔들리고 마른 나무에서 나는 꽃, 당신은 나의 궁극적인 헛된 삶이자 오직 꽃'. (조수에 카르두치, 피안토 안티코) 예술의 역사에서,오랫동안 꽃을 그린 그림은 사소한 주제로 간주되었다.그러나 특히 19세기 이후로,가장 위대한 화가 중 일부는 그들 스스로를 꽃의 묘사에 전념했다. 안 브뤼겔 옛 플랑드르 화가,17세기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하고 밝은 톤을 사용하여 화병과 바구니를 그렸다. 꽃 봉우리부터 꽃이 시들기까지 개화의 각 단계에서 묘사된 뚜렷한 노란 카드뮴의 반 고호의 해바라기는 가장 유명하다.모네의 정원의 장미, 아이리스, 튤립, 초롱꽃, 글라디올린, 동나무, 수련의 향연과 같다.

피오레, 2007년 조명 피팅 디자인 건축가 피터 줌서의 디자인, 비아비주노 조명 공장 IP20 등급 플로어 스탠딩, 실내에서 사용하는 벽과 서스펜션 조명 피팅. 버전: 피오레 플로어-스탠딩지름 Ø140mm 높이 134mm Aisi 304 주각부, 지름 Ø16mm 높이 1130mm 고정 막대, 지름 Ø13mm 높이 600mm 유연한 막대 그리고 지름 Ø80mm 높이 150mm 원추형 디퓨저; 선형 전위차계로 활성화 및 디밍, 12 시간 수명 리튬 이온 배터리, 1.2000mm 케이블이 포함 된 240V 50-60Hz 배터리 충전기. 액세서리 : 추가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추가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1, 5 및 10 모듈 추가 배터리 충전기. Ø13mm 600mm 피오레 벽 유연한 로드, Ø80mm 높이 135mm 원추형 디퓨저; 선형 전위차계로 활성화 및 디밍, 24Vdc 정전압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름 Ø80mm 높이 180mm의 피오레 천장 전원 공급 장치, 400mm 로드 지름 Ø13mm 높이 600mm 유연한 로드; 120-240V 50-60Hz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Ra95 2700K 4.5W 337lm led 광원의 유선. 광학 : 20 °. 마감 : 크롬 램프 본체, 이탈리아의 핸드 메이드 검은 가죽으로 덮여있는 디퓨저.

kunsthauus: neuter noun, from the german 'house of artists', indicates a building in which conventions, exhibitions and artistic exhibitions are held. it could be translated as an 'art gallery', although it has a wider and more specific meaning, referring to a space that hosts multiple projects and to which several artists collaborate.

fiore (flower): masculine noun, from the latin flos floris the most beautiful and showy part of the plant, which contains the reproduction apparatus: it is a transformed shoot that carries special leaves used for the reproductive function, different from the normal leaves in shape and size. in common use, some flowers are indicated with the same name of the plant, for example 'a rose'. 'a rain of flowers descended, sweet in the memory, from the beautiful branches into her lap'. (francesco petrarca, canzoniere) in a figurative sense, the best part, the chosen part, the most beautiful period, youth: the flower of sb's youth do not believe that the future is always roses and flowers. 'you, blossom of my own shaken and parched tree, you, of my vain life ultimate and only flower'. (giosuè carducci, pianto antico) in the history of art, for a long time the floral paintings have been considered a minor theme. yet, especially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some of the greatest painters have measured themselves with the representation of flowers. jan brueghel the old, flemish painter, in the seventeenth century painted vases and baskets, imaginative and varied, with warm and bright tones. the most famous are the van gogh sunflowers, with the unmistakable yellow cadmium, portrayed in each phase of flowering, from the bud to withering, like the monet gardens, a riot of roses, iris, tulips, bellflowers, gladioli, wisteria and water lilies.

fiore, light fitting designed in 2007 by peter zumthor architect, Viabizzuno light factory IP20 rated floor standing wall and suspension light fitting for indoor use. versions: fiore floor-standing with Ø140mm h.134mm aisi 304 steel base, Ø16mm h.1130mm fixed rod, Ø13mm 600mm flexible rod and Ø80mm h.150mm conical diffuser; activation and dimming with linear potentiometer, 12 hour life li-ion battery, 240V 50-60Hz battery charger with 1.2000mm cable included. accessories: additional battery, battery charger, additional battery and battery charger, 1, 5 and 10 modules additional battery charger. fiore wall with Ø13mm 600mm flexible rod, Ø80mm h.135mm conical diffuser; activation and dimming with linear potentiometer, 24Vdc constant voltage power supply not included, to be installed remotely. fiore ceiling with Ø80mm h.180mm power supply rose, 400mm rod and Ø13mm 600mm flexible rod; 120-240V 50-60Hz power supply included. wired with Ra95 2700K 4.5W 337lm led source. optics: 20°. finishes: chrome lamp body, diffuser covered with black leather handmade in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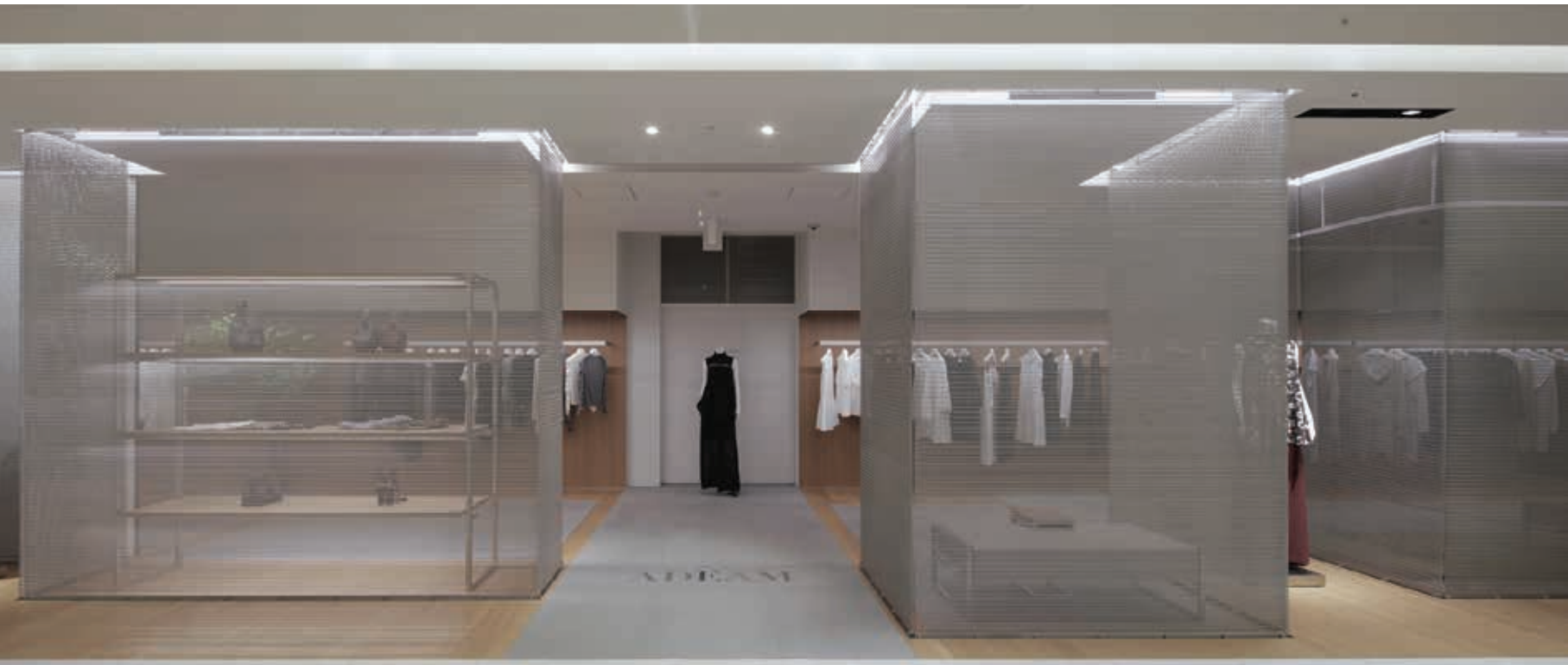


## adeam tokyo

**progetto project:** happenstance collective (javier villar ruiz, tomoki yamasaki)  
**luogo venue:** ginza six department store, tokyo, japan  
**superficie area:** 90mq  
**committente client:** adeam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Viabizzuno  
**rivenditore Viabizzuno dealer:** Viabizzuno shanghai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luca chinello  
**fotografia photography:** katsumasa tanaka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n55 system  
094 system  
m1 micro scomparsa totale  
c2  
arcoled

아담은 특히 매장 내 고객의 경험에 신경을 쓰는 패션 브랜드이다. 따라서 도쿄 기자의 새로운 6 소핑 센터가 고객들을 적절하게 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매력적이고 눈에 띄어야 한다. 건축 설계는 해폰스텐스 콜렉티브 스튜디오(studio happenstance collective)는 전체 길이에 맞춰 움직이는 반투명 숨속 메쉬를 사용하여 완전히 숨기지 않으면서도 특성화된 특징을 만들며 숨을 일반적인 통로와 분리 시킨다. 이 특별한 배치는 액세서리를 전시하기위한 편안한 좌석과 가구가 위치될 수 있는내부의 들어간 부분에서 번갈아가며 나온다.마네킹은 외부 틈새로 보이게 된다. 피에트라 세레나(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쓰였던 회색 사암)의 플로어 스탠딩 패널은계속되는 공간에서 방문자를 맞이한다. 건축 및 가구 디자인은동일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각 요소간에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대나무는 바닥재와 상벽에 사용된다.벽토는 틈새와 천장과 금속 메쉬를 위한 스테인레스 스틸과 가구의 지지 프레임에 사용된다. 완전히 은폐된 이 깎는 필수 개념을 준수한다. 공간 전체에 걸쳐 중요한 컨셉을 고수한다. 잘못된 천장의 그루브 안에 숨겨진 선형의 c2 Led 프로파일은 메쉬를 비춘다내부 및 반투명 백라이트 스크린부터 통행인의 눈까지 점진적인 음영효과를 내고 불투명한 분할된 벽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네킹과 거울 주변을 비추는 강조 조명은천정에 위치한 m1 마이크로 콤팩트사(micro scomparsa) 토달 조명을 사용하여 설치된다. 틈새에 통합된 아르크 led 램프는숨과 의상이 전시되어있는 장소를 비추며직물의 질감과 배경의 깊이를 강조한다. 작은 094 그루브 안에 있는 n55 스포트라이트는 마네킹을 비춘다. 이 디자인에서 빛은 쇼의 조용한 주인공이다. 고품질의 컬러 렌더링 인덱스(CRI 98)과 색온도(3000Vb K)에 의해 직물의 풍부함을 향상시키며 의상과 액세서리의 진정한 색감을 돋보이게 한다.

adeam is a fashion brand that is particularly attentive to the customer experience within its stores. hence it was important that the new space in the ginza six shopping centre in tokyo was welcoming and understated, but at the same time attractive and visible. the architectural design produced by the studio happenstance collective separates the shop from the general aisle by means of a semi-transparent metal mesh that runs along the entire length, without completely hiding it but rather becoming its characterising feature. its unusual layout alternates internal recesses, where comfortable seats and the furniture for displaying accessories can be positioned, with external niches in which the mannequins are displayed. floor standing panels in pietra serena accompany the visitor through the succession of spaces. the design of the architecture and the furnishings creates a continuity between the elements through the use of the same materials: bamboo is used on the floors and the upper walls, stucco in the niches and the ceiling and stainless steel for the metal mesh and the supporting frames of the furniture. the fully concealed appliances, used throughout the space, adhere to this essential concept. the linear c2 led profiles, hidden within the grooves of the false ceiling, illuminate the mesh creating a gradual shading effect and giving the appearance of an opaque dividing wall from the inside and a semi-transparent backlit screen to the eyes of passers-by. the accent lighting on the mannequins and near the mirrors is achieved using m1 micro scomparsa totale lights positioned in the ceiling. the arcoled lamps, integrated into the niche that runs through the shop and where the clothes are displayed, emphasise the depth of the backdrop and the texture of the fabrics. n55 spotlights inside small 094 grooves illuminate the mannequins. in this design, light is the silent star of the show. it brings out the true colours of the clothes and accessories, enhancing the richness of the garments thanks to the high quality of the colour rendering (CRI of 98), and the colour temperature of 3000Vb K.







## inagawa cemetery

**progetto project:**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luogo venue:** inagawa, japan

**committente client:** the boenfukyukai foundation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Viabizzuno with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rivenditore Viabizzuno dealer:** concentric plug, japan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jonathan morrish

**fotografia photography:** katsu tanaka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n55 sospensione**

**c2**

**m1 micro scomparsa totale**

**lucciola**

**silère**

이나가와 묘지는 오사카에서 북쪽으로 40km인 효고현

호쿠세츠 산맥의 경사지에 위치한다.

보엔후큐카이 재단은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에게 묘지의 예배당과 방문자 센터 구축을 의뢰했다.

공동 묘지는 테라스를 가로질러 배치되고 기념비적인 계단과 층계에 의해 양분된다. 전체 프로젝트를 지장하는 축인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신전으로 이어진다. 방문자 센터와 예배당은 외부 세계와 더 조용한 공간인 묘지의 명상 공간 사이의 경계로 디자인 되었다.

지붕 평면의 단일 슬로프는 언덕과 비교단 예배당인 쉼터, 방문객 센터와 추모실, 한적한 중앙 안뜰을 둘러싼 모든 장소로 이어진다. 방문객 센터의 객실은 안뜰 정원으로 열려있으며, 한적한 채플은 별채로 남았다. 채플은 개별 복도를 통해 갈 수 있으며,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전원에서 진입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소한의 난방과 인공 조명이 있는 꾸밈없고 조용한 방, 예배당은 명상적 공간을 제공하는 순수한 형태이다. 채플 안쪽에 있는 정원의 간접적인 햇빛에 의지하여 방문객들은 침묵을 찾아 잠시 기도할 수 있다.

단종의 계절적 변화와 일광의 변동에 대한 자연 지표를 통해 시간의 리듬에 중점을 둔다. 와시 종이와 직물로 만든 주름진 커튼에 의해 기념실은 세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공간은 제사 후에 공식적인 집기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바닥, 벽, 지붕은 순수한 건축 요소로 형성되고 흙 색과 같은 빨간색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 내부 바닥과 지면은 연마되었고 산책로 벽과 처마 밑은 샌드 블라스트 처리되었다 -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의 암석으로 된 외관을 갖는다.

비아비주노(Viabizzuno)와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절묘하게 짝과 차별한 조명을 계획해 이 명상 공간을 창조하였다. 조명 솔루션은 건물이 개발되는 동안 수 년 간 연구되었으며, 디자인을 진화시킬 수 있었다. 방문객 센터는 등집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 공간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솔루션이 필요했다.

살의 순간과 기도자를 위한 순간을 수용해야한다는 이 필요성은 결합하여,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해 조명 요소의 공통 언어는 필수였다.

비아비주노(Viabizzuno)의 n55시스템은 침착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이는 내부 전체를 신중하게 만드는 조명이다. 채플 안에서, n55 조명은 예를 들자면 건축물과 통합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추모실은 심층적인 계획을 특징으로하며, 마리오 나니의 hm02에 의해 디자인된 유리 색깔과 함께 n55 소스펜시오네(sospensione) 조명 피팅으로 구성감을 더하며 고요한 느낌 및 연속성을 보장한다. 외부 지역은 별개의 솔루션이 필요했다.

비아비주노(Viabizzuno)와 함께 작업한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새로운 조명 기구를 개발했다. ‘침묵 속에 있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에서 이름을 딴 실레레(silère)는 n55의 성분들이 이 공간의 건축을 참조로하여 결합한다. 그 모양은 통일성과 친밀함을 자아내는 빛으로 완벽하게 방문자 센터의 정신과 일치한다.

실레레(silère): 라틴어 sileo로부터 나온 말로 조용함 또는 침묵을 뜻한다. 실레레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존경의 신호로서 의식적 의사 소통의 한 형태로서의 침묵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조용함을 강요하는 침묵과는 대조적인 의미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실레우스(Syleus)는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좋은 디카우스의 형제였는데, 그는 아올리스의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산적이었다. 이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 σιλεῖν이며, 이는 ‘도둑질하다’를 의미한다. 이는 그의 그릇된 행동을 암시한다. 신화에 따르면, 그의 사유지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의 포도밭을 일궈야 했다.

어느날 헤라클라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곳을 지나게되었다. 그리고, 실레우스는 그에게 일을 시켰다. 그러나 영웅 헤라클레스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포도 덩굴에 불을 지르고 실레우스와 그의 딸 크세노도케를 살해했다. 그 일로 그의 막대한 힘의 화생자 한 명을 더 추가하게 되었다.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 스튜디오가 디자인하고 비아비주노(Viabizzuno)가 탄생시킨 벽의 빛은 일본의 효고현 이나가와와 공동묘지를 상상한다. IP55는 실내 및 실외용 충격 벽 조명 피팅이다. 분말 코팅된 알루미늄 몸체와 파이렉스 원통형 투명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3000K Ra 95에서 12.4W 826lm까지의 led 광원으로 배선된다.



inagawa cemetery is located on a steeply sloping site in the hokusetsu mountain range of the hyogo prefecture, approximately 40km north of Osaka. the boenfukyukai foundation commissioned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to build a chapel and visitor centre for the cemetery. the cemetery is laid out across terraces and bisected by a monumental flight of steps leading up to a shrine at the highest point, an axis that orients the whole project. the visitor centre and chapel are designed as a threshold between the outer world and the quieter, contemplative space of the cemetery. a single sloping roof plane follows the line of the hillside and shelters a non-denominational chapel, visitor centre and a memorial room, all grouped around a secluded central courtyard. the rooms of the visitor centre open onto the courtyard garden, while the secluded chapel remains separate. this can be reached via a discrete corridor, directly accessed from the outside or up a ramp from the garden. an unadorned and quiet room with minimal heating and artificial lighting, the chapel offers a contemplative space, pure in its form. relying on indirect sunlight from the gardens on either side, inside the chapel the visitors find silence and can take a moment to pray. their focus is drawn to the rhythms of time through the natural indicators of fluctuation in daylight and seasonal changes in the foliage. the memorial room, which can be divided into three smaller rooms by pleated curtains made with washi paper and fabric, offers space for formal feasts after rituals. the floors, walls and roof are formed as pure building elements and poured from the same earth-like red coloured concrete –polished for the internal floors and ground and sandblasted for the walkway walls and soffits– giving the overall structure a monolithic appearance. Viabizzuno and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have created an exquisitely pared down, subdued lighting scheme for this contemplative space. the lighting solutions were studied over a number of years as the building developed, allowing the design to evolve. although the visitor centre has a homogenous appearance, the spaces within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required specific solutions. combined with this need to accommodate moments of life and prayer, a common language of lighting elements was essential to tie the scheme together. Viabizzuno’s n55 system was selected to provide calm, discreet lighting throughout the interior. inside the chapel, for example, n55 luminaires integrate with the architecture in order to create a peaceful, still atmosphere. the memorial room features a more utilitarian scheme, with the n55 sospensione light fitting, with glass shade designed by mario nanni hm02, adding to the composed, tranquil feel, while ensuring continuity. the exterior areas required a bespoke solution. in collaboration with Viabizzuno,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developed a new luminaire. taking its name from the latin verb meaning ‘to be in silence’ the silère combines elements of the n55 range with references to the architecture of the space. its form creates a uniform and intimate light, which perfectly matches the spirituality of the visitor centre.

silères: from latin sileo, to be quiet or silent. silère refers positively to an idea of silence as a form of conscious communication, as a sign of respect for the thoughts of others, in contrast with being quiet which implies an impose silence. the greek etymology of the word is different in nature.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syleus, the son of the god poseidon and brother of the good dicaeus, was a bandit who lived in the rich and fertile regions of aulis. the origin of the name, from ancient greek σιλεῖν which means ‘to rob’, alludes to his bad conduct: according to the myth, whoever passed through his possessions was obliged to dig the vineyards. one day heracles himself passed by there and, like the others, was obliged to work by syleus. the hero however reacted violently by setting fire to the vines and killing syleus and his daughter xenedoce, transforming that chance meeting into one of his numerous demonstrations of strength. wall light conceived for inagawa cemetery, in hyogo prefecture, japan, designed by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studio and created by Viabizzuno. IP55 rated wall light fitting for indoor and outdoor use, consisting of powder coated aluminium body and pirex cylindrical transparent glass, wired with 3000K Ra 95 up to 12.4W 826lm led source.









## artisti all’opera

**progetto project: gianluca farinelli**  
**luogo venue: palazzo braschi, roma**  
**committente client: teatro dell’opera di roma**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mario nanni**  
**fotografia photography: lorenzo burlando**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tubino terra**  
**n55 binario**

극장은 물론 박물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좋은 극장은 제작된 작품의 기억과 소재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박물관이어야 한다.  
'아르티스티 알 오페라'는 로마의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졌다. 이 곳은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과거를 지키는 신중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브라스키 공전의 화려한 배경을 머금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의 건축적 무대이다.  
종소리는 우리에게 오페라의 시작이 곧 다가움을 알린다: 우리는 입구의 커튼을 지나게 되고, 놀랄게도, 무대에서 우리 자신을 찾게 된다. 공연자들이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홀을 어슬렁거리고, 가수들은 예향 연습을 하며, 기술자들은 말을 하고 다닌다. 우리는 바로 옆의 피카소의 삼각 모자 스케치 작품, 프람폴리니의 스케치들, 칼더의 모바일 그리고 특히 역사적 자료실에서 선택된 화려한 의상들에 감탄할 특권을 갖게 된다.  
섬유 모양의 투비노 테라(tubino terra) 램프 (직경 17mm, 높이 2000mm)  
검은 칠이 된 알루미늄으로 우리는 위대한 곳에서 훌륭한 예술가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색상의 풍부함을 드러내며 직물 및 원단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정면 및 각진 조명을 제공한다. 빛과 색의 역동적인 이미지가 스케치, 연극적 경관 및 역사적인 표현을 드러내며, 투비노 테라(tubino terra) 조명 피팅은 의상에 백라이트를 제공한다. 의상들은 공간의 중심이 되고, 뒷배경과 앞무대 사이의 완벽한 이행을 만들어 낸다.  
극장의 전형적인 조명과 그림자 디자인 세트. 우리는 조르지오 데 키리코가 로씨니의 오텔로를 위해 디자인하고 그린 거대한 커튼이 있는 건물의 메인 홀에 입장한다.  
n55 비나리오(binario)의 빛, 작가의 그림에 묘사된 것 같은 명확하고 강렬한 빛은 예술적인 이 무대 장치 작업에 대한 디테일을 강조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밝혀낸다.  
n55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프로пуль소레 디나미코(propulsore dinamico)이다  
다양한 종류의 전원과 다양한 유리 설치: 클래식하고 장식적이고 기술적인 전구.

a theatre, of course, is not a museum.  
yet a good theatre should also be a good museum,  
capable of preserving the material  
and memory of its productions.  
'artisti all'opera' is the long story  
of how the rome's opera house, vibrant and with its face  
set firmly towards the future, has been able to become  
a careful guardian of its past.  
the exhibition is housed within the splendid  
setting of palazzo braschi, an architectural stage of rare beauty.  
the chimes warn us that the opera  
is about to begin: we pass through the entrance  
awning and, surprise, we find ourselves on the stage.  
we wander through the halls while the performers  
prepare to go on stage, the singers rehearsing  
and the technicians talking. we have the privilege  
of admiring close-up picasso's sketches  
for the three-cornered hat,  
the sketches by prampolini, the mobiles by calder and especially  
the splendid costumes chosen from the historical archive.  
the filiform tubino terra lamps  
(17mm in diameter and with a height of 2000mm)  
in black painted aluminium guide us to the discovery  
of the mark left by great artists in these precious clothes.  
precisely positioned, they provide frontal  
and angled illumination of the fabrics and drapery,  
revealing the richness of their colours. while dynamic images  
of light and colour reveal sketches, theatrical scenery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s, the tubino terra light fittings  
provide backlighting to the costumes,  
making them the centre of attention of the space  
and creating the perfect transition between  
the backdrop and the apron stage:  
a set design of lights and shadows typical of the theatre.  
we enter the main hall of the building that houses  
the great curtain designed and painted  
by giorgio de chirico for rossini's othello.  
the light of the n55 binario, clear and intense  
like that depicted in the artist's paintings,  
highlights its details and reveals a new story about  
this scenic work of art.  
n55 is a system designed to allow  
maximum flexibility, a propulsore dinamico  
on which to install different types  
of electronic sources and different  
glasses: classic, decorative and technical bulbs.







고품질의 조명 덕분에 커튼을 위해 예술가가 선택한 색상의 풍부함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색온도 3000K 1 단계 마다캄(madacam), 컬러 충실도 지수 ies tm-30 Rf 96과 채도 인덱스 Rg 103 이는 색상의 일관성과 조명의 균일성을 제공한다. 키리코에 따르면 ‘쇼는 사람들에게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영혼의 세계로 여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구체적이고 가까운 세계이다. 이는 우리에게 일종의 구체적인 비현실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하나 하나 지날 때마다, 조명은 중앙 스테이지에 걸러를 입힌다.

백드롭(backdrop, 뒷배경): 남성 명사, 극장에서 배경 캔버스에 장면을 그려넣은 장식. 원근감의 한계를 나타낸다. 비슷하게, 사진과 영화 촬영에서는 백드롭이 촬영된 장면이나 물체의 배경을 만드는데 사용된 종이, 플라스틱 또는 직물의 크고 작은 표면을 가르킨다. 회화에서 백드롭은 시대와 스타일에 따라 변한다. 비잔틴 모자이크에서 16세기 내내 사용된 얇은 금박까지, 오늘날은 몬테펠트로의 푸른 계곡으로 불리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언더기 많은 풍경까지. 우르비노 대학의 도제들인 로세타 보르키아와 올리비아 네쉬두에에 따르면, 백그라운드에 투스카니와 마르케의 언덕을 뒤따라 백드롭은 로마나와 마르케 사이의 경계에 레오나르도의 지오르다 위에 나타나는 배경으로 발마레키아(valmarecchia)와 일치한다. 이탈리아어로 ‘폰달레(fondale)’는 호수나 바다의 바닥에서부터의 표면의 높이이기도 하며, 보통은 미터 단위로 측정된다.

앞무대(각광): 중성 명사, 중심축 또는 수평 선지에서 회전하는 평면, 위 아래로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축 또는 문으로 구성되는 폐쇄 요소: 접이식 책상. 극장에서 무대의 앞 부분은 홀 쪽으로 아치형 무대 장치 아래 볼록하게 나온 건축이다. 이를 따라 광원이 정렬된다. 극장에서 커튼 정면의 앞무대와 동의어이다. ‘각광(le luci della ribalta)’과 같은 일부 이탈리아 구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며, ‘알장서 서다(salire alla ribalta)’는 ‘무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탈리아에서 또한 넓은 의미로, 사용된 다양한 강도와 색상의 스크린을 ‘앞무대(ribalta, 리발타)’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위로 배우와 앞무대 또는 무대를 비추는 직접 및 간접 조명의 경우, ‘라임라이트(각광)’은 찰리 채플린의 각본, 감독, 연기한 영화로 버스터 키튼도 출연한 1952년 미국 영화에 사용되었다. 1914년을 무대로 한때 환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만성 알콜 중독자인 한 광대의 이야기로 자살 시도를 하던 젊은 댄서를 구하는 내용이다.

we have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richness of the colours chosen by the artist for the curtain, thanks to the high quality of the lighting: colour temperature of 3000K, 1 step macadam, colour fidelity index ies tm-30 Rf 96 and colour saturation index Rg 103 that give consistency of colour and uniformity of illumination. according to de chirico, ‘a show offers people the opportunity to travel in spirit to a world that is imaginary and fantastic, yet at the same time concrete and close. it makes us participants in a kind of concrete unreality’. and so, room after room, the lighting puts colour centre-stage.

backdrop: masculine noun, in the theatre scene is the decoration painted on the background canvas which represents the limit of perspective. similarly, in photography and cinematography, it indicates the more or less large surface of paper, plastic or fabric used to make the backgrounds of the scenes or objects taken. in the paintings, the backdrop changes in ages and styles, from the byzantine mosaics to the thin gold leaf used throughout the sixteenth century, up to the hilly landscapes of piero della francesca, today identified with the green valleys of montefeltro. according to rosetta borchia and olivia nescidue, apprentices of the university of urbino, the backdrop that appears behind the leonardo’s gioconda matches the valmarecchia, on the border between romagna and marche, followed by tuscan and marche hills in the background. in italian ‘fondale’ is also the height of the surface of the sea or of a lake basin with respect to the bottom, usually measured in meters.

apron stage (limelight): neutral noun, closing element consisting of a plane, an axis or a door, rotating on pivots or a horizontal hinge that allows it to get up and down: a folding desk. in the theatre architecture is the front part of the stage protruding under the scenic arch towards the hall, along which the light sources are aligned. it is synonymous with proscenium and it is used frequently in some italian phrases like ‘le luci della ribalta’ meaning ‘the limelight’, ‘salire alla ribalta’ meaning ‘to rise to the fore’. in italian, by extension it is also called ‘ribalta’ the luminaire with lights and screens of variable intensity and color used for direct and indirect lighti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of the proscenium and of the actors, or even of the stage. ‘limelight’ is a 1952 american film written, directed and performed by charlie chaplin, where buster keaton also appears. set in the london of 1914, is the story of a clown, once acclaimed, but now a chronic alcoholic, who saves a young dancer from a suicide attempt.







## amorepacific

**progetto project:**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berlino (christoph felger, hans krause)

**luogo venue:** seoul, south corea

**superficie area:** 190.000mq

**committente client:** amorepacific corporation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arup berlino (alexander rotsch, joana mendo)

**referente del progetto project manager:** mario nanni, alessandro rabbi

**fotografia photography:** christoph felger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n55 sospensione**

**amP**

**lensoptica amP**

비아비주노(Viabizzuno)는 다국적 한국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공모한 조명 기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분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했다.

총 바닥 면적 190.000 평방 미터, 이 건물은 현재 서울의 재개발이 진행중인 전 군사지역에 위치한다. 현대의 도시 중심과 홍산 공원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여 기술, 인간 존재, 자연 사이의 만남의 장소를 상징한다. 건축 설계 업무를 맡게 된 베를린의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 스튜디오는 이 빌딩의 각각의 공간에 강한 주제성을 주고 싶었다.

본사는 사실 매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물관, 강당, 사무실 및 판매 공간. 그래서 같은 계열의 컨셉으로 한 램프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높은 품질의 빛을 제공하면서도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관리 비용이 관건이었다. 베를린의 아를 스튜디오에 의해 탄생한 조명 디자인은 자연광과 인공광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러므로 우수한 품질과 연색성을 가진 인공 조명의 건물 안에서 비아비주노(Viabizzuno) 조명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고려한 고품질과 높은 컬러 퍼포먼스 표현한다. 자연 채광이 대형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서면 파사드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련의 알루미늄 늑수직 요소들은 눈부심 효과를 없애는 대상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비아비주노(Viabizzuno)는 태양광의 특징과 태양광과 가능한 가깝게 일치하는 빛을 창조하기 위해 두 베를린 스튜디오와 긴밀한 협력 하에 작업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엠프가 탄생했다. 램프는 세상에서 이런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광학을 생각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렌소티가 엠프(lensoptica amP)는 광원에 높은 효율을 부여하며 카타디옵트릭 프리즘을 통해 입사광의 90%를 반사하여 10%를 전송하는 초고투명성 소재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사용했다. 이는 간접 배출 비율을 보장하여 급속 반사경을 사용해서는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방출면은 마이크로 렌즈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광선의 각도 진폭을 정확하게 조절한다. 렌즈는 방출하는 광선(좁은, 중간, 넓은, 타원형)의 관점과 크기(150mm, 180mm)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다양성을 갖는다.

그들은 모두 n55 렉 커플링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다. 이는 프로풀소레 다나미코(propulsore dinamico) n55 가 설치되어 관리의 유연성의 극대화를 보장한다. 이 조명은 다양한 공간과 어떠한 가구 배치의 변경 사항에서도 요구를 충족시킨다.

Viabizzuno won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to develop and supply light fittings for the headquarters of amorepacific, a korean cosmetics multinational, with a total floorspace of 190.000sqm, the building is located in a former military area of seoul currently undergoing urban redevelopment, on the border between the modern heart of the city and yongsan park, thus representing the meeting point between technology, human presence and nature. the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studio of berlin, in charge of the architectural design work, wanted to use light to give a strong identity to the different areas of the building. the headquarters is in fact a composition of areas with very different functions: museum, auditorium, offices and sales area. and so was born the concept of a family of lamps with the flexibility to carry out different functions, offering a high quality of light but with low energy and above all very low maintenance costs. the lighting design created by the arup studio of berlin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light, therefore Viabizzuno lighting expresses quality and high color performance recognizing the well-being of everyone working within building of artificial lighting having excellent quality and colour rendering characteristics. natural light enters the building through the large windows that are a feature of the façade, where a series of vertical aluminium elements provides a targeted control to eliminate any dazzling effect. Viabizzuno work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two berlin studios to create a light that matches as closely as possible the characteristics of sunlight. to achieve this goal, amP was born, lamps that are the only ones of this kind in the world, that revolutionises the way of conceiving optics. indeed, lensoptica amP, developed for this project, endows the light sources with a high level of efficiency, achieved using a very hightransparency material, polymethylmethacrylate which, by means of catadioptric prisms which reflect 90% of the incident light flow and transmit 10%, guarantees an indirect emission percentage that is unobtainable using a metal reflector. the emitting surface consists of a matrix of micro-lenses that precisely regulates the angular amplitude of the light beam. the lenses have different variations in terms of the beam of light emitted (narrow, medium, wide, elliptical) and of dimensions (150mm, 180mm). they are all equipped with n55 quick coupling connectors that allow installation on a propulsore dinamico n55 and guarantee maximum flexibility in managing the light required by the various areas and in accommodating any changes in the arrangement of the furnishings.





렌슬티카 엠프는 오랜 연구와 개발의 결과로,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아를이 함께 국제적인 엔지니어링 스튜디오인 비아비주노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는 집중 조명과 확산 조명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고효율 광학 장치로 전자 광원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매우 고투명한 재료 덕분에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카타디옵트릭 프리즘을 통해 특별히 빛을 반사하고 빛의 흡수로 인한 손실 없이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요소들은 입사광의 90%를 하향으로 반사시키고 그 중 10%를 투과시켜 이 방법으로 간접 방출 비율을 보장한다. 이는 금속 반사경으로는 도달 할 수 없는 결과이다. 마이크로 렌즈 집합체는 광 빔의 각도 진폭을 정확하게 조절한다. 대형 방사체 표면은 휘도를 제한하고 높은 시각적 편안함과 UGR<19를 보장한다.

렌슬티카 엠프는 렌즈이자 반사경이다. 빛의 광선이 전체 내부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기술적 특성을 위해 렌즈는 고효율과 빛의 정확한 방향 제어를 결합다. 렌슬티카 엠프의 방사형 표면에는 마이크로 렌즈 집합체가 장착되어 있다. 각 마이크로 렌즈는 평행 빔을 수신하고 그 곡률에 따라 제어된 방식으로 각도 개방을 확대한다. 각각의 마이크로 렌즈의 방출 중심점은 조명의 균일한 분포를 만들어낸다. 렌슬티카 엠프는 빔의 각도 개방에 기초하여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좁은, 중간, 넓은 및 타원형.

각도의 정확한 값은 광원 직경에 따라 다르다.

**lensoptica amp** is the result of a lo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made by Viabizzuno on a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with arup, international engineering studio, design to provide electronic light sources with a high efficiency optics that can have either a focused and a diffuse light. high efficiency is achieved thanks to a very high transparent material, i.e. polymethyl methacrylate, by means of catadioptric prisms specifically designed to reflect and transmit light reducing losses due to absorption:these elements, reflect 90% of the incident light flow downwards and transmit 10% of it, assuring this way a percentage of indirect emission which could not be reached with metal reflector. the microlens array precisely regulates the angular amplitude of the light beam. the large emitter surface limits luminance, ensuring high visual comfort and UGR<19.

**lensoptica amp** is both a lens and a reflector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rays of light undergo refraction and total internal reflection. for this technical charactrestic it combines high efficiency and accurate directional control of light.

**lensoptica amp** emitter surface is equipped with a microlens array.each microlens receives a collimated beam and according to its curvature it enlarges the angular opening in a controlled way. the overlap of the emissions of each microlens creates a uniform distribution of illumination. **lensoptica amp**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angular opening of the beam: narrow, medium, wide and elliptical. the exact value of the angle depends on the source diameter.

투명 재료(T)의 내부 투과율은, 램버트-비어 법칙  $T_{\lambda} = e^{-\alpha x}$  에 의해 두께(X)와 재료 자체의 흡수 계수(α)에 의해 결정된다. the internal transmittance of a transparent material (T) is determined by the thickness (x) and by the absorbing coefficient of the material itself (α) due to lambert-beer law  $T_{\lambda} = e^{-\alpha x}$

| materiale    | coefficiente d'assorbimento α |
|--------------|-------------------------------|
| 소다 석회 유리     | 0,017 mm <sup>-1</sup>        |
| 폴리카보네이트      | 0,004 mm <sup>-1</sup>        |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 0,0014 mm <sup>-1</sup>       |

이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공간 및 시각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전원 공급 장치는 보드에 램프와 깜빡임-프리 기능을 제공하는 달리 디머를 드라이버를 내장하여 1~100%까지로 디밍 범위를 사용 가능하다. 조명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특정 색 온도를 요구한다: 사무실, 판매 지역 및 공동 구역에 대해 98의 4000K CRI.

CRI가 98 인 3000K의 온도, 위의 조건은 레스토랑과 박물관에서 채택되었다. 모든 전자 led 광원은 1 단계 맥아담 타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조립과 배선 디테일에 관한 연구였다. 비아비주노(Viabizzuno )는 조명 장비의 설치를 단순화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건축사, 전기 기사 및 설치 담당자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엠프 램프 본체는 1인 압출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구성되었고 실제로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설치를 제공한다:

천정, 매달기 또는 오목한 곳.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22.000개 이상의 제공된 조명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계식 센터링 시스템이 장착된 브래킷은 동시에 각 천정 광장에 완벽하게 집중된 위치를 확인하면서 등기구가 바닥에 고정되도록 한다.

이 유형의 설치에서, 케이스가 장착된 렌즈는 바닥 평판과 오버헤드 시스템에 빛을 비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천정 장착 램프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는 버전과 동일한 몸체를 가지며, 단지 고정하는 방법만 다르다. 아를 스튜디오의 조명 디자이너가 요구한대로, 렌즈는 바닥을 향하는 빛을 방출하고 천정을 밝히는 것을 추가하기 위한 간접적인 기능이 있다.

매달리는 조명 시스템은 직접 및 간접 두 가지 조명 모두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에는 테이블로 조명을 집중시키기 위해, 건축가가 150개의 좁은 광학 장치가 설치된 55/350 유형의 프로폴소레 디나미코 n55 매달리는 조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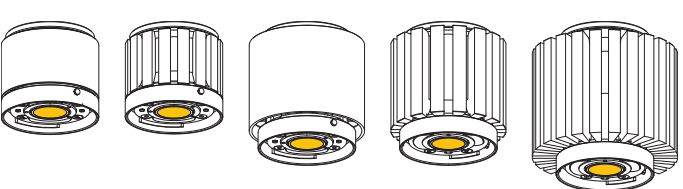
입구 홀의 기념비적인 아트리움에서 정지된 유닛의 두 번째 솔루션이 선택되었다. 히트 싱크를 지지하는 직경 55mm 튜브로 구성된 조명 기구는 좁은 광학 300mm 직경 렌즈가 차례로 장착되었다. 이 방식으로 구성된 램프는 효과적인 흐름인 6700lm 을 생성한다. 대중량의 아트리움을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유지 보수 요구 사항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결과, 하나의 램프 본체 및 전체 시스템과 교체가 용이한 렌즈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조명 장치 대해 3개의 전원 공급 장치 모델만 사용하도록 선택하였다. 이 엠프 제품군의 조명 성능은 지속 가능한 건축의 개념과 함께 한다. 114lm/W에 달하는 높은 조명 효과와 사용한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몇 가지 특성 덕분에이다. 실제로, 결합이 발생한 경우 램프 본체를 폐기하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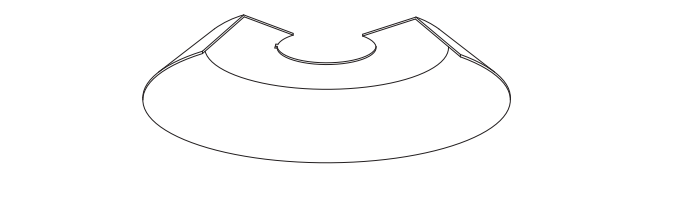
대신 구성 요소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생성하여 새로 설치할 수 있다.

빛의 사용에 관한 경험치 많은 비아비주노 (Viabizzuno)와,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인 치퍼필드 스튜디오와 조명 분야의 선진 연구를 진행한 아를 스튜디오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과 정교한 광학 기능의 조명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는 매우 높은 품질의 빛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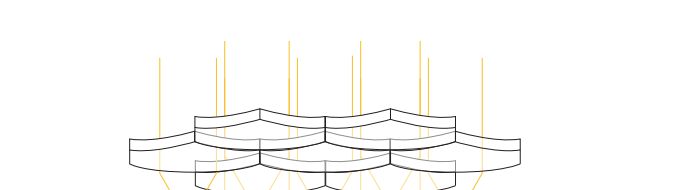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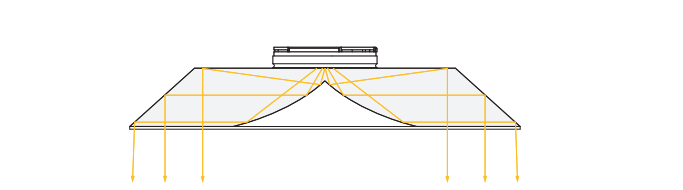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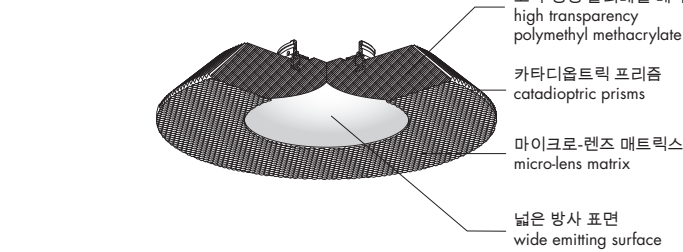
propulsore dinamico n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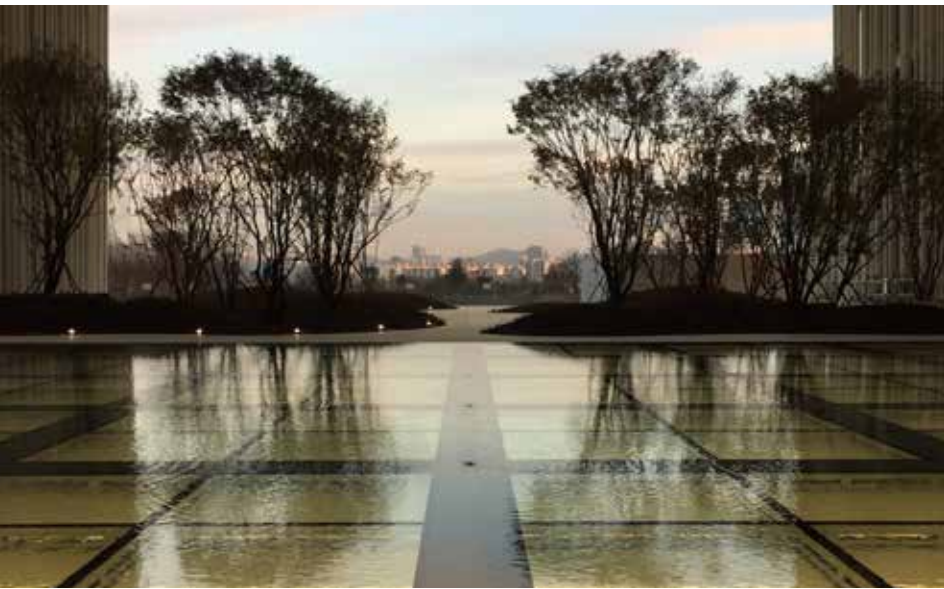
금속 반사경- metal reflector



lensoptica amp



to ensure the maximum spatial and visual comfort of those working in the building, the power supplies are integrated on board the lamp and flicker free dali dimmable drivers with a dimming range of 1-100% are used. the lighting design calls for specific colour temperatures for different areas: 4000K CRI of 98 for the offices, sales areas and common areas, while a temperature of 3000K, with a CRI of 98, was adopted for the restaurant and the museum. all of the electronic led sources have a 1 step macadam ellips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ject was the study of the assembly and wiring details that Viabizzuno ha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architects, electricians and installers to simplify the installation of lighting equipment and make it effective. the amp lamp body, consisting of a finned extruded aluminium heatsink, in fact provides for three different types of installation: ceiling, suspension or recessed. the last mentioned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 more than 22.000 light fittings supplied. a bracket equipped with a mechanical centring system allows the luminaire to be secured to the floor,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positioning that is perfectly centred on each ceiling square. in this type of installation, a lens equipped with a casing is used to avoid illuminating the floor slab and the overhead systems. the ceiling mounted lamps have a body identical to the recessed version, differing only in the method of clamping. as required by the lighting designers of the arup studio, the lens emits a light directed towards the floor, to which an indirect contribution is added to illuminate the ceiling. the suspended light fittings offer two solutions, both with direct and indirect light. in the restaurant, the architects chose to use n55 sospensione with a 55/350 type propulsore dinamico n55, equipped with 150 narrow optics, to concentrate the lighting on the table. in the monumental atrium of the entrance hall the second solution with suspended units was adopted, luminaires consisting of a 53mm diameter tube that supports the heatsink, equipped in turn with a narrow optics 300mm diameter lens. configured in this way the lamp produces an effective flow of 6700lm, allowing the large volumes of the atrium to be illuminated effectively. great attention was paid to the maintenance requirements, choosing to use a single lamp body and only three power supply models for the entire system, interchangeable lenses and light fittings that are easy to remove. the lighting performance of the amp family goes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architecture, thanks to sev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its high illuminating effectiveness, which reaches 114lm/W, and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the materials used. in fact, in the event of a fault, the lamp body must not be disposed of. instead it can be regenerated and installed anew, in order to maximize the recycling of the components. thanks to the experience of Viabizzuno in the use of light, to the attention paid to the design by the chipperfield studio and to the advanced research in the field of lighting of the arup studio, this project has made it possible to develop lights fittings with the flexibility to meet different needs and with sophisticated optics, that offer light of very high quality.







## ap house

**progetto project:** gga gardini gibertini architetti

**luogo venue:** urbino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rossibianchi lighting design e gga gardini gibertini architetti**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maicol fedrigo**

**rivenditore Viabizzuno dealer:** Vboriccione / marisa lazzaretti

**fotografia photography:** ezio manciucca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foro**

**droid binario**

**m1 micro incasso**

**toccami**

**zero**

**c1**

**c2**

**linea di luce**

**toccami**

**lampade custom disegnate da gga gardini gibertini architetti**

ap 하우스(ap house)는 우르비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장 높은 언덕 중 한 곳에 위치하며, 고대 농촌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공동 시대(11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구조의 유적에새로운 건물 시스템이 등장한다. 새로운 건물과 풍경의 역사적인 계층화 사이 직접적이고 공간적인 상호 작용을 재확립함으로써 지하층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들은 주변의 풍경을 지배하는 빨간색 콘크리트 플랫폼 위에 놓여있다. 단일 주거 단위를 구성하는 집안의 핵심은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석조 층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지붕 홀통이나 수직 낙수 홀통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피한다. 그리고 측정된 비율로 순수하고 분리된 침묵의 유물과도 같은 풍경을 제공한다. 이 지역의 시골 지역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장소를 회복하고 있다.

그 구성적이고 부피적인 심각도에서 이 프로젝트가 마르케 지역의 전통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테마를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재료의 처리에서,계획의 레이아웃에서,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구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현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하우스 배통 브루의 외벽은공간을 확보하고 구조를 지지하는 어떤 인테리어의 필요성도 없애버린다.

물집과 빛이 다시 한 번 원시의 구성 요소가 된다.

조명 디자인은 급진적이다.

그 결과 구조적 외장이 공간의 중심이 되어 물집의 특성을 강조하게 된다. 내부 공간에서 천정과 벽의 천공된 콘크리트와 예정된 콘크리트는 조명 설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조명 디자인은 두

가지의 다른 기능 수준에서 작동한다. 하나는 친밀하고 자연스럽고, 다른 하나는 보다 기술적이며 기능적이다.

부드럽게 확산된 빛은 자연스럽게 공간과 표면의 호흡을 강조한다.

2003년 피터 Zumthor가 디자인한 포로 램프는 건물의 구조에 내장된 것으로 집의 가장 친밀한 공간을 모으기 위해 당신을 유혹하는 촛불이다. 처마 밑에 수납된 드로이드 트랙의 스포트라이트는 2013년 안토니 아를라의 디자인이다.

벽에 있는 예술 작품의 세부 사항을 강조하고, 바닥과 가구에 있는 조각들을 강조한다.

대형 갤러리의 주변에 배치된 1층에 있는, 일련의 수직 벽기둥 램프는 특히 이 공간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주변 틈새의 콘크리트에서 천장의 처마 밑을 비추며 부드러운 빛과 전체 수면 지역의 확산된 조명을 제공한다.

정원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막고, 정원 을 볼 수 있 하기 위해, 빌라로 들어오는 길은 지하의 큰 차고에서 이루어진다.

기술 공간 및 녹지 공간에 덧붙여 이 공간은 영화관이 있다. 별채를 연결하는 전시실로 인접한 스파가 딸린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

낮은 눈 높이의 계단들은 주요 건물의 중심부로 직접 이어져 장엄한 전망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언덕과 야의 수경장이 보이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별채는 나무로 되어 있는 외부 구조 패턴으로 인해 농가를 연상케한다. 정원에서, 밤에는 마법이 열린다: 빛은 구조물을 정지시키고 돌을 밝힌다.

ap house bears testimony to the rebirth of an ancient rural village located on top of one of the highest hills in the most beautiful landscape in the whole of urbino.

the new system of buildings rises on the remains of an ancient structure dating back to the communal age (end of the 11th century).

connected to each other on a subterranean level, the structures rest on a red concrete platform dominating the surrounding landscape, by re-establishing a direct and empathetic interaction between the new buildings and the historical stratification of the landscape, the core of the houses, which constitutes a single residential unit, gives the place a central role once more.

the buildings, in their stone shells, devoid of superfluous elements such as gutters or downspouts and in their measured proportions, offer themselves to the landscape as pure, discrete and silent relics, recovering their identity and their cultural place within the rural matrix of the area. if the project, in its compositional and volumetric severity faithfully interprets the formal themes typical of the tradition of the marche region, inside, in the treatment of the materials, in the layout of the plan and in the furniture made completely to design,

it seeks to lay claim to being thoroughly contemporary. the perimeter wall in béton brut reinforced concrete, frees up the space and eliminates the need within the interior for any other supporting structure.

and so matter and light become once more the primordial compositional elements.

the lighting design is radical: it results in the structural envelope becoming the centrepiece of the space, highlighting the nature of the materials.

in the interior spaces the perforated and etched concrete of the ceiling and walls becomes itself an integral part of the light fittings. the lighting design operates on two different functional levels:

one is more intimate and natural, the other more technical and functional. a soft and diffused light naturally emphasises the cadence of the spaces and surfaces.

the foro lamp, designed by peter zumthor in 2003, embedded in the structure of the foundation, is the candle that entices you to gather around the most intimate spaces of the house. housed in the soffits, the spotlights on droid tracks,

a 2013 design of antoni arola, highlight the details of the artistic works on the walls, the sculptures on the ground and on the furniture.

on the first floor, arranged around a large gallery, a series of vertical pilaster lamps, designed especially for these rooms and housed in the concrete in perimeter niches, illuminates the soffit of the ceiling giving a soft light and a diffused illumination of the whole sleeping area.

in order to avoid having any vehicles parked and visible from the garden level, the main access to the villa takes place in the basement from the large garage. in this area,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and plant areas, there is a cinema room, an exhibition gallery connecting the main building and the outbuildings and a gym with an adjoining spa.

from the lower level, stairs lead directly to the heart of the main building where a majestic view opens up of the hilly landscape and of the outdoor pool area. the outbuilding, in the pattern of its wooden external frame, is reminiscent of a barn. it is in the garden, at night the magic takes place: the light suspends the structures and lightens the stone.





## motor ranch 46

progetto project: ing. domenico fucili

luogo venue: tavullia

committente client: valentino rossi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maicol fedrigo, UpO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maicol fedrigo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palovr46



발렌티노 로씨의 새 프로젝트는 2010

년에 시작되었다:

어린 라이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위한, 목장 주택.

이는 모두 20년 전에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페사로 우르바노 지방의

페물과 건물 잔해 사이의 고립된

채석장의 분리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젊은 챔피언인 그는 타블리아에서 vr46

아카데미의 공식 트랙을 만들기

결정한다. 1600m의 비포장 도로에서

그 훈련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이 땅의

이 트랙에서 당신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언덕이 많은 풍경이 목장의

경계를 부드럽게 감싼다.

박물관이 있는 개조된 농가 앞에서,

워크샵 및 오토바이 목장 주택의 다양한

공간들, 라이더들이 훈련하는 곳을

넓히는 직선 코스:

일정하고 둥근 굴곡이 있는 일련의

주변되어 설계된 트랙들은언덕의

다양한 높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외형 치수가 570m와 ‘tt’인 2

개의 타원 모양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교차로 하나, 더 좁고 더 기술적인

오르막길.

총 2킬로 500미터의 석회암과 수년에

걸쳐 미세 조정된 석회질 암석의

혼합물; 사실 트랙은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었다. 최상의 도로 유지 및

최소한의 유지 보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최초 모터 사이클

아카데미인 이 목장은 vr46 아카데미

계획의 기초이다. 젊은 라이더들이

마스터와 나란히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스타일과 운전 방법을 배운다.

이곳은 교육과 가치를 전승하는 영감의

장소이다.

이 공간은 특정인의 독점 사용만이

가능한 폐쇄된 공간이 아니며, 발렌티노

로씨와 그의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모든 라이더들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기존 농가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복원이 개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오늘날, 트랙에

가까운 곳에 탈의실, 작업장,

라이더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

프레스 룸, 레이스 관리 사무실이 있다.

인근에는 체육관을 설치할 위해

개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소박한 건물이

있다. 이 곳에서 크로스 트랙, 플랫

트랙, 육상 트랙이 갖춰질 것이다.

그리고 목장의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뤄진 첫 번째 목표는 교육 시간을

연장하고 자연 채광이 없는 곳에서도

트랙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엔지니어이자 시설 테크니컬

코디네이터 도메니코와 레이싱 의상 및

테스트 트랙 md인 푸칠리와 알베르토

테발디와 협력한 비아비주노

(Viabizzuno)는 훌륭한 품질의 조명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다.

8개의 막대: 6개는 고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2개는 원격 제어 신호등을

포함한다.

높이 25미터로 서있는 2도 기울어진 8

개의 그라운드 앵커가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다. 풍경과 더불어 유기적인

요소이다.

외륜의 직선 구간들 사이에서 다양한

높이를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중심 대

중심의 거리, 정렬, 기울기에 따라 그

공간에 막대를 높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이탈리아 모터 사이클 연맹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가치를 반영한

균일한 조명을 얻을 수 있다.

평균 조도 80lux,

0.5와 동일한 균일성. 1미터 높이의

유리 섬유로 된 빛의 침탑이 거대한

강철 막대 위에 서 있다.

경기장 위에 빛의 커튼을 만드는 rgb

시스템의 하우싱.

완전히 조명을 받은 목장을 둘러싼 왕관

모양의 언덕은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라이더들이 일광이 없어도 도전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경기장.

플랫 트랙: 트랙 경주의 변형, 오토바이

경주의 한 형태로 각 라이더 또는 각

팀들은 비포장 타원형 회로에서 서로

마주본다. 자갈, 지붕 널 또는 모래의

평평한 경사면에 스피드 웨이가

펼쳐진다. 경쟁자들은 드리프트를

사용하거나, 휠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완전하게 브레이크가 없는 스피드

웨이인 오토바이와 달리, 플랫 트랙

오토바이는 뒤 브레이크만 장착되어

있다.

valentino rossi’s new project

was kick-started in 2010:

to construct a space

for training young riders, the ranch.

it all began more than twenty years ago

when he rode a motocross bike with his father,

among junk and building rubble, along

the disconnected paths of an isolated quarry

in the province of pesaro urbino.

the young champion he decided to construct

the official track of the vr46 academy

in tavullia, on 1600m of dirt road with

the conviction that training on the land helps you to

go fast also on the track. the hilly landscape

gently surrounds the boundaries of the ranch.

in front of a renovated farmhouse

that contains the museum, the workshop

and various rooms of the motor ranch,

a stretch extends where the riders train:

tracks that are ordered and designed

with a series of regular and rounded bends

that lie on different levels of the hill.

among these, a soft cross one, formed by two ovals

of which the outer measures 570m and the ‘tt’,

a narrower and more technical climbing stretch.

in total 2 and a half kilometres of limestone

and a mixture of calcareous rock

fine-tuned over the years; in fact

the track grew little by little, to find the right balance

with the best road holding and least

maintenance time. the ranch is fundamental

to the vr46 academy plan, the first italian

academy of motorcycling, because young riders

can race alongside the master, learning his style

and way of driving, the result of decades

of competitions. it’s a place of inspiration,

teaching and transmission of values.

it isn’t an exclusive circle but a space open

to all riders who want to challenge

valentino rossi and his pupils.

the project, an actual historical

restoration intervention on pre-existing

farmhouses, still hasn’t been completed:

today, close to the track,

there’s a dressing room,

a workshop, a room where riders eat,

the pressroom and the office

for managing the races.

nearby there’s another rustic building

to be renovated to house the gym which,

together with the track for cross,

flat track and athletics, will be part

of the future of the motor ranch.

the first goal achieved was the creation

of the lighting system which

permitted prolonging

the training hours and using

the track even in the absence of natural light.

collaborating with engineer domenico fucili,

technical coordinator of the facility,

and alberto tebaldi, md of racing apparel

and test track, Viabizzuno has created

a lighting design of great quality.

eight poles: six positioned in the centre

of the rings and two including remote

controlled traffic lights.

eight ground anchors inclined

at 2 degrees have made these structures,

which stand 25m high, elements

that are organic with the landscape.

by studying the various heights between

the straights of the outer ring,

it was decided to place the poles

in the space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centre-to-centre distances,

alignments and inclinations in order

to achieve a homogenous illumination

that reflects the values required by the italian

motorcycling federation regulations:

average illumination 80lux,

uniformity equal to 0.5. one metre

high fibreglass spires of coloured light stand

on the great steel poles,

housing an rgb system

that creates drapes of light

above the arena.

the crown of hills that embraces

the completely illuminated ranch

creates a unique landscape:

an arena where riders can continue

their challenges even without daylight.

flat track: variant of the track racing,

a form of motorcycle competition

in which single riders or teams face

each other on unpaved oval circuits,

as the speed way runs on flat slopes

of gravel, shingle or sand, which

competitors exploit to drift,

or to get a controlled heel.

unlike the speedway bikes, completely

without brakes, the flat track bikes

are equipped with only the rear brake.





## palazzo mondadori ‘sospeso, leggero ma non troppo’

**progetto project:** oscar niemeyer, 1975  
**luogo venue:** segrate, milano  
**committente client:** gruppo mondadori  
**progetto della luce lighting project:** mario nanni  
**responsabile tecnico di zona Viabizzuno technical area manager:** matteo vivian  
**fotografia photography:** studio pietro savorelli  
**apparecchi di illuminazione lighting fittings:**  
cubo medium  
unaghi  
fi 50  
**bacchetta magica led**  
**meridiana di luce**

*‘haec autem ita fieri debent,  
ut habeatur ratio firmitatis, utilitatis, venustatis.’  
de architectura, liber I, 2*

위대한 건축 이론가 비트루비우스(80 – 15 bc)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견고성, 편리성 및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

견고성(firmitas), 편리성(utilitas), 아름다움(venustas)은 몬다도리 빌딩 프로젝트의 특징 짓는다. 전후 국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이며, 1975년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 니에메이어(1907—2012)가 이탈리아에서 창작한 작품이다.

견고성(firmitas). 건물은 남북 축을 따라 설정된 230미터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부터 서쪽으로 해가 지는 길을 가로지른다.파라볼릭 아치의 흉안에 의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삶의 시간을 살펴볼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에 23개의 필라스터를 리드미컬하게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브라질 건축가가 사무실에 반짝이는 불꽃을 매달았다. 전체 공사에 극도의 가벼움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형태와 구조 사이 완벽한 상응을 얻도록 관리한다.

니에메이어는 입구를 표시하는 산책로와 만나는 황금 광장의 포인트와 14번째 아치를 일치시킴으로써 건물의 비율을 황금 비율로 만들었다.

기하학적 엄격함은 물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형태와 대조된다. 편리성(utilitas). 생산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밀라노 발행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건물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다.

이것은 지성과 창조적인 생산에 영감을 불어넣어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이탈리아 기업가의 탁월함을 전달한다.

아름다움(venustas). 시대를 초월하는 물과 땅에서 일어나는 콜로네이드(지붕을 떠받치는 일련의 돌기둥)들은 정역학의 법칙에 도전한다. 풍경 위에서 지평선만이 유일한 그 기준이 된다: 무한대까지 뻗어있는 저 멀리를 보는 것. 실용적인 필요성에 의해 태어난 빛의 복원 프로젝트는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었고, 마법과 강력한 햇빛, 달빛, 별빛에 전념하도록 설계되었다. 건축, 조경, 빛 사이의 깊은 합성으로 버무려졌다.

역사와 기념비적 건물의 연구, 존중과 귀 기울임에서 태어났다: 무엇보다 먼저 귀 기울이기.

나는 약처럼 건물의 개별 부분 광 변조를 상상했다. 사무실의 불규칙한 아치의 수직성 수직성은 화음의 연결과 같다. 낮은 물체의 수평의 형태는 멜로디 선과 일치한다.

모든 단일 부품은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쾌한 교향곡 자체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상호관계에 의해서이다.

according to the great theorist of architecture vitruvius (80 – 15 bc)  
all buildings must have the attributes  
of solidity, utility and beauty.

firmitas, utilitas and venustas characterize the mondadori building project,  
one of the most important buildings of post-war  
international architecture, created in Italy in 1975  
by the brazilian architect oscar niemeyer (1907—2012).

firmitas. the building consists of a body of two hundred and three metres  
set along a north-south axis, crossed by the sun from east and west,  
where the time of life within it is scanned by natural light captured  
by the embrasure of parabolic arches.

the brazilian architect has suspended the glazed volume of the offices  
within a rhythmic succession of twenty-three pilasters in reinforced concrete,  
managing to give extreme lightness to the whole construction  
and obtaining perfect correspondence between form and structure.

niemeyer has checked the proportions of the building with the golden ratio,  
by matching the fourteenth arch to the point at which the golden square meets  
the walkway that marks the entrance.

geometric rigor contrasts with free forms that emerge from the water.  
utilitas. created to meet the milanese publisher's need  
to expand its production spaces, the building becomes an iconic place.  
it communicates the excellence of italian entrepreneurship,  
inspires the intellect and creative production, teaches beauty.

venustas. the timeless colonnade challenges the laws of statics,  
rising from the water and the earth, it stands above the landscape  
and makes the horizon its only reference: looking far, stretching to the infinite.

my project of restoration of the light, born from practical need,  
is designed to be long lasting and is dedicated to the magic and to the  
powerful light of the sun, of the moon and stars, blended into a deep synthesis  
between architecture, landscape and light.

born from study, from respect and listening to the history  
and matter of the monumental building: listening first of all.  
i imagined the luminous modulation of the individual parts of the building  
as a musical score, in which the verticality of the irregular arches  
of the offices corresponds to the harmonic progression while the horizontal  
shape of the low body matches the melodic line.

all the single parts can be considered independently  
but it is only by their mutual relationship  
that this light symphony could complete itself.





악보에서처럼 정확하게, 나는 설계했다. 루브랑과 크레센도, 악센트와 그리산도;등의 것들은 트랙에 리듬을 부여하고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한다.

적절한 조명에 대한 나의 8가지 규칙과 일관되게나는 움직이는 빛을 창조했다.건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강도와 색상을 변조한다. 조명 프로젝트는 지지 기둥을 기본으로 시작한다. 건축과 완벽하게 통합되며 그들의 기념비적인 본성을 조명한다. 재료에 주목한다.2200K부터 5000K까지의 훌륭한 색조 표현과 색온도 덕분에 그날의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건물은 연대기적 축이 되고,여기서 빛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한 주의 매 저녁은 맞춤형 조명으로 특징을 얻게 된다: 어느 정오의 따뜻한에서부터,콘크리트 색조의 적절한 시야를 허용한다.직교 좌표계의 참조를 따라,내 디자인 생각은 정오의 따뜻함에서부터 2017년의 6월의 21일의 여름 최고점의 라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성장했다. 여기서 종좌표는 태양광 강도를 나타내고

형좌표는 2017년 6월 21의 24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종좌표는 일광강도에 대응하고 형좌표는 24시간을 나타낸다. 나는 조명 공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역 규정에 따라, 나는 위로 향하는 조명을 실현했다.그것은 자정까지 꺼져 있는 조명 기구를 통해 건물의 플레에서 15lux를 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15lux를 넘지 않는다.

나는 밤의 마법을 통해 건물에 생명을 불어 넣은 빛의 해시계만 을 남겼다.

이것은 건축물의 리드미컬한 구성을 완성하는 24번째 수직 요소이다.빛의 칼날은 책의 페이지처럼 건축물을 가볍게 애무한다. 이 빛나는 교향곡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음악은급속 합금과 나무와 같은 고귀한 재료를 선호하는 어쿠스틱 악기로부터 나온다.다재다능한 화음은 큰 틀과 함께 함께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집값과 풍부한 청각 개방의 가능성을 넓힌다.매달려 있지만, 또한

생성하고 살아있다.건물의 23개의 기둥의 표면과의 대화는 이상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불러일으킨다: 수직 반복성, 치수 이질성, 수직성, 장엄성 및 경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바리톤 색소폰, 테너, 소프라노의 음악, 꿈의 제안을 불러일으키는 비브라폰과 마림바, 새벽부터 일출까지, 아침의 일어난 부터 정오까지, 오후부터 일몰까지, 황혼부터 밤의 어둠까지,시멘트, 물, 불, 그림자와 빛은 24분 교향곡의 해석자들이다.이 빛나는 교향곡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음악은 급속 합금과 목재와 같은 고귀한 재료를 선호하는 어쿠스틱 악기에서 나옵니다. 다목적 고조파 확장은 바람이 잘 통하는 긴 림 텍스처와 부유한 청각 개방을 가능하게한다. 큰 휴식, 중단, 생성하고 생성한. 건물의 23 개 기둥의 표면과의 대화 : 이상적인 특성, 즉 지속적인 반복, 차원 적 이질성, 수직 성, 엄숙함 및 경향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바리톤 색소폰, 테너, 소프라노의 음악, 새벽부터 일출, 아침의 각성에서 오후, 일몰에서 일몰, 밤의 어둠까지 꿈의 제안을 불러 일으키는 비브라폰과 마림바. 시멘트, 물, 불, 그림자 및 빛은 24 분 교향곡의 해석자들이다.

모든 기둥을 위한 1분에 시간을 조절하는 빛의 해시계의 1분.빛과 그림자, 견고성, 유동성과 매달린 건물의 아름다움,빛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도 않다.

하지점(summer solstice):남성 단수 명사, 라틴어 ‘solstitium’에서 비롯됨.’태양’를 뜻하는 sol-과 ‘정지’를 뜻하는 -sistere가 결합됨.황도에 따른 명백한 운동에 의해 태양이 최대 또는 최소 적위에 도달했을 때의 천문학적인 순간이다: 북반구에서 가장 높은 고도와 남반구에서의 최저점이다.조상과 고대 문명을 위해 이것은 빛과 그림자 사이의 관계를 회상하는 인간 본래의 의식과 송배로 특징지어지는 날이었다.나는 날을 내 일의 시작일로 택했다.왜냐하면, 우선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이다.두 번째로 우리가 게자리의 신호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틴어에서 게자리’게’는 12개 별자리중 하나이다.그리고 이것은 쌍둥이 자리와 사자자리 사이에 위치한다.고대에는 지구 축의 선행 운동이 전에 태양이 게자리에 걸려 여름 최고점의 날 정확하게 그 절정에 빛났다.

exactly as in a score, i have designed movements and crescendos, accents and glissandi; rests, which contribute to giving rhythm to the track and give it a distinctive character. coherent with my eight rules for proper illumination, i have created a light in motion that modulates its intensity and colour to animate the building. the lighting project integrates completely with the architecture and, starting from the base of the supporting pillars, illuminates their monumental nature. it underlines the material, thanks to the great chromatic rendering and with colour temperatures able to change with the hours of the day and with the season, from 2200K to 5000K.

the building becomes a chronological axis, where light indicates the passage of time. each evening of the week is characterized by a tailor-made light: from the warm one of midday, which will allow proper vision of the concrete tones. following the cartesian reference, my design thought grew out of the light diagram of the summer solstice of june twenty-first two thousand and seventeen, in which the ordinates correspond to sunlight intensity and the abscissas represent the twenty-four hours of the day.

i paid extreme attention to the issue of light pol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regulations, i have realized an upward illumination that does not exceed 15lux within the perimeter of the building and 5lux outside, through lighting fixtures that are switched off by midnight. i leave only the sundial of light, which makes the building live through the magic of the night. it is the twenty-fourth vertical element that completes the rhythmic composition of the construction. a blade of light which, lightly, caresses the architecture like the page of a book. the music which i wanted in order to celebrate this luminous symphony, comes from acoustic instruments, favouring metallic alloys and nobler materials such as wood. versatile harmonic extensions capable of airy long-limbed textures and rich auditory openings, with large breaks, suspended, but also alive and vivid. a dialogue with surfaces of the twenty-three pillars of the building which ideally evoke its significant characteristics: persistent reiteration, dimensional heterogeneity, verticality, solemnity and lightness at the same time. a music by baritone sax, tenor and soprano, vibraphone and marimba that evokes the suggestion of the dream, from dawn to sunrise, from the awakening of the morning to midday, from afternoon to sunset, from dusk to the darkness of the night. cement, water, fire, shadow and light are the interpreters of a twenty-four minute symphony: a minute for every pilaster plus one for the sundial of light that beats time. light and shadows, solidity, utility and beauty of a building suspended, light but not too much so.

summer solstice: masculine singular noun, from the latin ‘solstitium’, composed of sol-, ‘sun’ and - sistere, ‘stop’, is the astronomic moment when the sun reaches its maximum or minimum point of declination in its apparent movement along the ecliptic: it has its highest altitude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minimum in the southern hemisphere. for our ancestors and ancient civilisations this was a day that featured atavistic rites and cults that recalled the link between light and shadow. i have chosen this date for the opening of my work because, first of all it is the most brightest day of the year, secondly it is the night in which we enter into the sign of cancer. in latin cancer ‘crab’ is one of the twelve constellations of the zodiac, and it is located between gemini and leo. in antiquity, before the movement of precession of the earth’s axis, the sun was in cancer and shone at its peak precisely on the day of the summer solstice.

summer solstice: masculine singular noun, from the latin ‘solstitium’, composed of sol-, ‘sun’ and - sistere, ‘stop’, is the astronomic moment when the sun reaches its maximum or minimum point of declination in its apparent movement along the ecliptic: it has its highest altitude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minimum in the southern hemisphere. for our ancestors and ancient civilisations this was a day that featured atavistic rites and cults that recalled the link between light and shadow. i have chosen this date for the opening of my work because, first of all it is the most brightest day of the year, secondly it is the night in which we enter into the sign of cancer. in latin cancer ‘crab’ is one of the twelve constellations of the zodiac, and it is located between gemini and leo. in antiquity, before the movement of precession of the earth’s axis, the sun was in cancer and shone at its peak precisely on the day of the summer solstice.

summer solstice: masculine singular noun, from the latin ‘solstitium’, composed of sol-, ‘sun’ and - sistere, ‘stop’, is the astronomic moment when the sun reaches its maximum or minimum point of declination in its apparent movement along the ecliptic: it has its highest altitude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minimum in the southern hemisphere. for our ancestors and ancient civilisations this was a day that featured atavistic rites and cults that recalled the link between light and shadow. i have chosen this date for the opening of my work because, first of all it is the most brightest day of the year, secondly it is the night in which we enter into the sign of cancer. in latin cancer ‘crab’ is one of the twelve constellations of the zodiac, and it is located between gemini and leo. in antiquity, before the movement of precession of the earth’s axis, the sun was in cancer and shone at its peak precisely on the day of the summer solstice.





1 어둠 속에서 into the darkness  
내 이야기는 항상 시작된다 my tale always begins  
2 한밤중에 멀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in the middle of the night a sound from afar  
너는 달을 낮은 목소리로 부른다 you low moon  
3 지평선에 닿아있는 달 who touches the horizon  
그리고 달은 내 꿈을 키워준다 and protracts my dreams  
4 내 쪽으로 와서 come towards me  
밤의 희생이 while the tolls of the night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 come with us  
끈기있게 천천히 tenaciously slowly  
4.57 일어나, 내 연인 wake up, my sweetheart  
5 들어 봐 listen  
그것은 빛이 된다 it becomes the light  
5.35 너 붉은 마음은 너 자신을 보여준다 you red heart who show yourself  
동쪽에서 from east  
6 너 자신을 드러내고 천천히 일어난다 you reveal yourself and arise slowly  
너는 나타날 뿐이다 you just appear  
흐릿해지면, 너는 흔들어, 빛을 밝힌다 blurry, you shake, enlighten it  
7 그, 잠시 멈추고, 빛을 비춘다. 넘치지 않게 him, suspended, light but not too much  
8 작고 가벼운 피꼬리 light small nightingale  
작은 감정들 tiny of emotions  
9 지저짐을 부탁해 beg call sizzle  
움직임이 확장되고 move catch expand  
10 너 자신을 숨기는 백라이트 backlight hide yourself  
11 내 옆에 온화하게 다가와 placidly come beside me  
너의 기억의 맛과 함께 with your taste of recollection  
12 고원을 빛낸다 light of high grounds  
13 너는 태양의 큰 책으로 들어간다 you enter into the sun's big book  
13.25 너는 여왕, 시간의 역사 you queen, history of the time  
광이나게 닦이고 burnished  
격렬한 intensified  
정오의 불타오름은 희생한다 burning of midday which tolls  
빛의 지성소는 light sancta sanctorum  
마음을 만진다 who touch the heart  
초여름 짧은 그림자 early summer short shadow  
너의 표면은 아름답다 your mantle is beautiful  
빛의 여신 light diva  
너의 지평선 your horizon  
장식하지 않고 without decoration  
도달할 수 없는 방사된 윤곽 unreachable radiated contour  
14 유연한 사각의 빛 limber quadrilateral light  
15 시행과 무효의 속에서 into the doandundo  
16 세계 여행에서의 of the world's journeys  
춤추는 아치 dancing arch  
17 소원의 문 wishes' portal  
무중력에서 너는 펄럭인다 weightless you flutter  
18 들어가고 떠나는 entering and leaving  
19 기둥으로 부터 from the columns  
가벼운 희망처럼 as light hope  
약속의 제단에서 on the promises' altar  
20 끊임없는 진동으로 constantly in vibration  
21 작고 견고한 저항 compact solid resistant  
21.16 연결하는 빛 connection light  
길을 비추는 빛 wayfaring light  
더 이상이 아닌 오늘 not anymore of the day  
아직 저녁이 안 된 날 not yet of the evening  
반사의 물결 reflection's wave  
오동치는 래핑 oscillating lapping  
기쁨의 심장 폭행 heart assault of joy  
나는 너를 다시 물 안으로 본다 i see you again into the water  
너는 가라앉으며 너를 입힌다 you dress yourself with sink  
내 사랑 my lovely  
차 색깔로 in tea colors  
21.54 너는 물 위에서 반성한다 you reflect on the water  
일광이 폐쇄된 동안 while the daylight close  
너는 서쪽에서 사라진다 you disappear on west  
기적처럼 like a miracle  
22 활기찬 황혼 vibrant dusk  
열렬하고 참을성이 없는 ardent impatient  
23 도망가는 빛 light who runs away  
그리고 달이 온다 and then comes the moon  
거대한 파도 the big mother wave  
그는 큰 어머니와 같은 게자리 he big mother cancer  
밤의 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온다 comes telling stories into the night's fire  
가장 높은 금성, 최고 통치자 아프로디테... highest venus, sovereign aphrodite she...  
24 지금 now  
별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the stars reveal themselves  
떠돌아 다니는 천문관 the wandering planetarium  
혜성과 키메라 of comets and chimera  
수백만 년을 나타내는 나무의 몸통 trunks tall of millions of years  
그들의 고대 함성 their ancient shouting  
모든 것이 탈바꿈이다 everything is metamorphosis  
모든 것이 흐른다 everything flows  
모든 것은 완료한다 everything completes  
그리고 스스로 재발명한다 and reinvents itself  
결코 늙지 않는 너 안의 in you who never gets old  
다행히도 나의 것 mn blessedly mine mn





